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제1687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한미FTA 개정” 美, 재협상 선언

내달 워싱턴 특별공동委 개최 요구
韓 정부 “개정협상 시작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작을 공식 통보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셈이다.

▶관련기사 3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협상 과정의 시작을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급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이 개최 3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게 된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 측은 개정 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철강, 원산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쪽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8월 중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나프타 재협상을 상호 지렛대 삼아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위 개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문에 따라서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양국 실무진이 참여하는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꾸려지면 대미 흑자 감소세와 함께 한미 FTA가 거둔 여러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올해 1~5월 미국을 상대로 6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대미 흑자폭은 2015년 사상 최고인 25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32억 달러로 전년보다 26억 달러 줄었다.

박엘리 기자 ellee@

2410도 훌쩍‥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2400선을 훌쩍 넘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54포인트 오른 2410.31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관용車 반값보험 40년…정부의 甲질

1977년 박정희 정권때 만든 할인 특약으로 50% 저렴
높은 손해율로 적자 누적‥보험사들 관용차 입찰 꺼려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8만1000여 대 관용차량이 일반차량 보험료의 반값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에 근거해 보험료가 일반차량보다 50%가량 저렴하다. 약관에는 구체적인 할인 요율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반값 할인이 적용돼왔다.

특별히 관용차 할인을 해준 것은 보험료에 들이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용차량이 일반차량보다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4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관용차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중)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관용차량 손해율은 2015년 90.2%, 지난해 88.7%로 보험사 입장에선 적자 상태다. 자동차보험 손익 분기점이 되는 적정 손해율(77~78%)을 웃돌고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1970년대 관의 권위의식이 강할 때 만들어진 제도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험료가 반값이라 공용차량이 외제차와 한 번 부딪히기라도 하면 손해율이 치솟는다”고 말했다.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로선 적자가 불보듯 뻔한 만큼 관용차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관용차 입찰은 2개 이상 보험사가 응찰해 최저가를 내민 보험사가 낙찰되는 구조이지만, 단독 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

공개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마저 힘들 경우 보험사 공동인수로 넘어간다. 보험사 공동인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며, 자차·자손 등의 종합보험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입찰 담당자들도 보험사들의 반발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물량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용차 50% 감액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자 특혜”라며 “할인 특약을 없애면 국민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부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첫 발의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12면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날 ‘사법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탄핵안은 작년 대선 때 트럼프가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발의된 것이다.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정부와 관련 있는 변호사와 작년 6월 9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민감한 정보를 받은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트럼프 주니어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만남을 주선한 홍보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메일이 오히려 ‘러시아 스캔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셔먼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은 당장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하원 전체 의석 중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화당은 하원 435석 중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11선의 민주당 중진의원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3개월째 동결행진이다. 이는 이투데이가 7일 17명의 증권사 채권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다.

최근 수출 호조와 심리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온기가 소비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떠올라

휴대전화 싸게 구입할수 있게 되나

부정적이던 이통사 첫 찬성 선회

새 정부가 논란 끝에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이 ‘부실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휴대전화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1만 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통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완전자급제에 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제조사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휴대폰 판매점 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할 수 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안이 미흡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의 98% 이상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 휴대폰 유통 과정이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이라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다 보니 가격 부담이 커진다. 반면 북미(64%), 서유럽(56%), 중국(30%), 아시아(25%) 등 대다수 국가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다.

현재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해관계는 이통사별로 다르다. 이통사 모두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부분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마케팅전을 펼치지 않았을 때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 고객이 몰리는 ‘시장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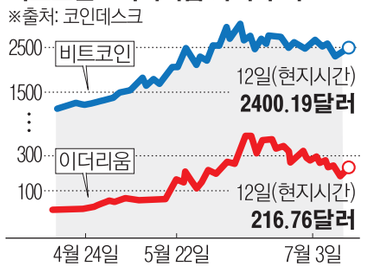
김범근 기자 nova@

롤러코스터 타는 가상화폐

고점 한달만에 20% 넘게 와르르
비트코인 내달 1일 ‘세그윗’ 적용

가상통화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 가치는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다. 유가증권시장으로 따진다면 약세장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상통화 중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비트코인은 지난달 12일 기록한 고점(3000달러)에서 약 20%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50% 넘게 주저앉았다. 리플이나 라이트코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주요 가상통화의 급락세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트코인은 8월 1일부터 세그윗(SegWit2X)이라는 새로운 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은 그간 하루 20만여 건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해 기술적으로 거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가상통화는 13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더리움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8시 기준 10%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3%대 상승폭을 보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16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성욱 부회장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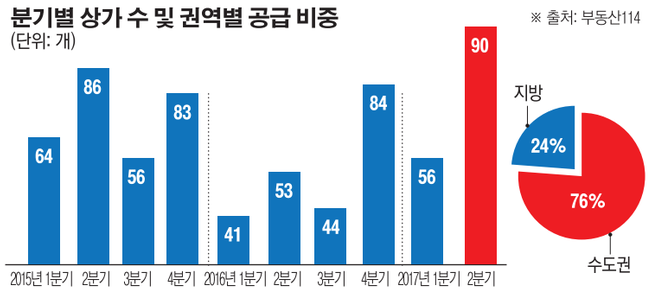

박현종 회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News

분기별 상가 수 및 권역별 공급 비중
(단위: 개)

※ 출처: 부동산114



※ 위 자료는 각 분기에 수집된 공고 및 분양정보를 기준으로 집계,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분기 상가 공급물량 7년만에 최다… 수도권이 76%

올해 2분기(4~6월) 상가 분양 물량이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에 90개 상가가 공급됐다. 2010년 2분기(117개 상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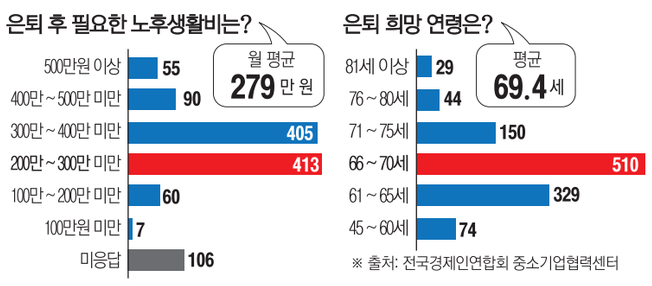
상가 분양은 마곡, 미사, 동탄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 택지지구에 집중돼, 전체 물량 중 76%(68개)가 수도권에 있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 38개 △단지 내 상가 32개 △복합형 상가 16개 △대형 복합 상가 3개 △테마상가 1개 등이다.

근린상가는 마곡, 배곧, 미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위주로 수도권에서만 31개 상가가 공급됐다. 아파트 내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는 LH단지내상가 공급 증가 영향으로 예년 대비 비교적 많은 물량이 공급됐다.

2분기에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1층 기준) 2601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724만 원, 지방은 2227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대형 복합 상가가 313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린상가 3081만 원, 복합형 상가 2675만 원, 테마상가 2100만 원, 단지 내 상가 1963만 원 순이다.

이정 기자 right@

중장년층의 은퇴준비 실태 조사 결과 (단위: 명)
40세 이상 1136명 (재직자 481명 · 구직자 655명) 대상 설문조사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노후생활비 月 279만원 필요 "69세까지 일하고 싶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은퇴 후 노후생활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은 월 27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69.4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채용정보 검색사이트 '잡서치'와 함께 40세 이상 1136명(재직자 481명·구직자 655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 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평균 월 27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평균 최종 연봉이 6490만 원(월 54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은퇴 직전 연봉의 절반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이들이 원하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 연령'은 평균 69.4세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운영 기업의 평균 정년(60.3세)과 비교하면 은퇴 후에도 9년 이상 더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은퇴 이후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재취업'(59.1%)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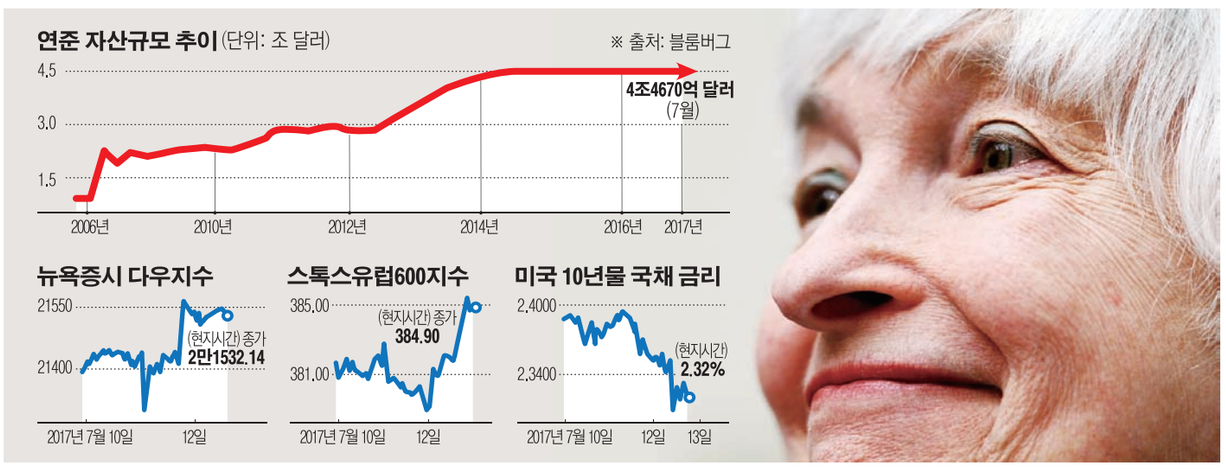
문선영 기자 moon@

연임 물건너간 옐런, 시장에 '비둘기' 띄웠다

연준, 점진적 금리인상 재확인

美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출석
이르면 9월 자산 규모 축소 시사
온건한 통화정책 금융시장 안도
다우지수, 3주만에 사상 최고치

내년 2월 퇴임, 후임 찾는 트럼프
백악관 NEC 수장 '게리 콘' 유력



12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 색채를 되돌리면서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옐런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내에 약 4조5000억 달러(약 5144조 원)에 달하는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에 착수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완만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옐런은 현재의 미지근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 연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원래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비쳤다.

옐런 의장은 "경제 확장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향후 수년간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과열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 금리는 현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자산규모 축소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연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후 질의 응답에서는 "비교적 일찍"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 축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됐다.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대량으로 매입해 자산이 위기 전 9000억 달러에서 4조50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양적완화가 끝난 이후에도 만기를 맞은 보유 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이를 줄여나가면서 금융정책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옐런은 보유 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시장의 동요를 차단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옐런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물가상승률이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시기상조"라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진하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유연한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최근 '매파' 성향을 보이던 옐런이 이날 청문회에서 '비둘기파'로 복귀하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3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bp(bp=0.01%포인트) 떨어진 2.32%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앞서 옐런 의장은 지난달 말 니콜라스 스턴 브리티시 아카데미 회장과의 대담에서 "우리 시대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제에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내년 2월 옐런의 의장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옐런을 연임시킬 가능성은 제로(0)인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의 임기는 이제 길어야 6~7개월 남은 셈이다. 옐런의 후임으로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이 유력하다.

이날 공화당 소속의 숀 더피(위스콘신) 의원이 "이번이 연준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서는 자리가 될 것인가"라고 묻자 옐런 의장은 "내 임기는 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또 옐런 의장은 "나는 확실히 (내년 2월까지인) 내 임기를 채울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연임 여부 질문에 더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옐런은 13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상원에서도 이날과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올 들어 100조 담은 外人, 보유시총 첫 600조 돌파

점유율 34%… 10년 만에 최고치
원화 약세·수출 등 자금이탈 복병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올 초만 해도 외국인 보유액은 500조 원을 조금 넘은 수준이었지만, 반년 만에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시가총액이 이달 11일 기준 602조6000억 원으로 집계,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점유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시총(1770조3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보유 주식 비율은 34%대(34.04%)를 넘어섰다. 외국인의 점유율이 34%대를 기록한 것은 2007년 6월 20일(34.08%) 이후 처음이다. 앞서 외국인의 시총 점유율은 2005년 10월 당시 39%대에 달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9년 5월 25%대까지 추락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해왔다.

외국인의 시총 점유율이 급증한 것은 이들이 올해 들어서만 10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결과다. 외국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무려 25조 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특히 지난달 6년 만에 코스피가 박스피를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방향도 관심사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의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배당성향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인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외국인이 보는 것은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으로 단순한 금리 차이에 따른 논리만으로 외국인 이탈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원화 약세, 수출 부진 가능성, 일부 기업 실적 부진 가능성 등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하반기 수출 성장률 등 경기 성장 모멘텀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미 FTA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

美 '무역 불균형'에 불만 개방확대 파상공세 예고

韓 포함 16개국 무역적자 보고서 준비
자동차·철강 분야 집중 타깃 가능성

우리 정부도 "對美 흑자 갈수록 줄어 이익균형 맞춰지고 있다" 적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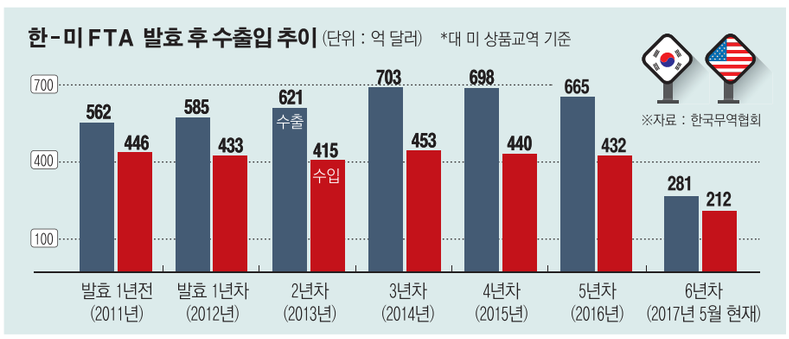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해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게 돼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 정책 파기를 선언한 뒤 재협상을 제안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우선 자동차와 철강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부분에 요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쟁점 중 하나였던 미국산 의약품 가격 산정 문제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갈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사상 최고인 25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32억 달러로 전년보다 26억 달러 줄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대표부가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13일 "협정문에 따라서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동위가 만들어진다면 양국은 첫 협상 못지않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 개최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로 인해 재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정 협상은 공동위에서 양국이 합의할 때만 개정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정에 합의한 바 없으며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가 협정 개정에 합의해 주지 않더라도 미국 측이 한미 FTA 협

"官用車 계약하기 싫어" 손사래 치는 保險社

손해율 높은데 보험료는 반값… 보험가입 입찰때 보험사 참여 저조

2차례 유찰되면 自車·自損보장 없이 계약… 공무원도 "운전 겁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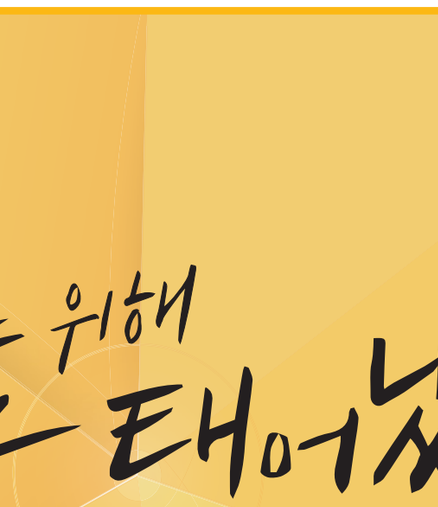
서울시 한 자치구는 4월 12일 공용차량 173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을 입찰했다. 보험료는 1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보험사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결국 보험가입이 무산됐다. 이 자치구는 일주일 뒤인 19일 재입찰을 했지만 또다시 무응찰로 유찰됐다.

이 자치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응찰을 안 해 관용차보험 가입이 힘든 상황"이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유찰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전국 8만여 대 관용차량 보험가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높은 손해율 탓에 보험사들이 인수하기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관용차 보험은 기존에는 사고가 적어 손해율이 양호했지만, 최근에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손해율이 급등했다. 반값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사고 빈도가 늘고 외제차 등으로 보험금 지출도 급증해서다.

서울시 또 다른 자치구는 지난달 22일 관용차량 152대 보험 가입을 두고 입찰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 1곳만 응찰해 결국 보험가입이 무산됐다. 이 자치구는 28일 재입찰했지만 같은 이유로 또다시 유찰됐다.



이 자치구 재무과 관계자는 "2번 연속 1개사만 응찰해 모두 유찰됐다"며 "보험사들이 관용차보험은 실익이 없다 보니 응찰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2차례 가입이 무산되면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본인 피해를 보장하는 자차·자손 담보는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다. 타인 피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2번 유찰 시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때는 대인대물만 가입이 된다"며 "자차·자손과 기타 특약 모두 가입이 안 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차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손해율 증가의 주 요인인 반값 할인 특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료가 너무 낮아 사고율을 아무리 억제해도 손해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무원들은 보험료 인상이 관용차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을 우려해 보험료 인상을 선뜻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자차·자손 담보의 사각지대에 시달려야 한다.

서울시 한 구청 주무관은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구의회에서 관용차보험료 같은 경상경비(고장비용)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등록된 관용차량은 8만1850대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는 2만8249대, 승합차 2만526대, 화물차 3만525대, 특수차량은 2550대다.

박규준 기자 abc84@

문대통령-기업인 만남 '형식파괴'

뻔한 얼굴·뻔한 대화?… "이번엔 다르다"

靑, 분야별 기업인 초청 "독대 없을 것"
투자·규제완화보다 '일자리 창출' 논의
相生경영·한미 FTA 등도 주요 의제로

지지부진했던 청와대와 재계와의 소통에 물꼬가 트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어김없이 이뤄지는 대통령과 재계와의 회동이지만 방식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와는 분명히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문 대통령은 당연히 기업인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있으니 다음 달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바빠서 그러는 데 일정은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 간의 첫 번째 회동이 다음 달로 늦춰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 방문 기간에 '귀국 후 기업인들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 이후인 8월 둘째 주경 만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가 시기보다 더 집중해 논의하는 사항은 형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재계와 만나던 식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로, 그것도 필요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중점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인들을 만나 협의할 테지만, 과거와 같이 재벌총수 만나는 건 2017년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이전 정부에서 재계순위별로 초청 기업을 선정하고 재벌 총수들을 한데 모아 투자 확대와 같은 '선물보따리'를 요구하고 규제 완화 등의 보상으로 답하는 형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이나 격식을 파괴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회동의 키워드는 성장·분배 동시 추구를 골자로 한 '착한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동반성장과 상생경영, 일자리창출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재계를 만나는 형식과 내용은 이러한 기조로 굳혀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주 세 번째 기업인과의 공식회동인 '일자리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계획하면서 재계 그룹 순서가 아닌 임직원 숫자를 기준으로 참석 대상 '10대 대기업'을 선정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동의 주메뉴는 일자리창출, 상생경영이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 등의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한미 FTA 후속조치 시작을 공식 요구하면서 미국이 FTA 불공정 무역의 대상으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대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민간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추경' 憲政사상 처음으로 물거품 되나

野3당 "송·조 임명 철회" 강경 입장
文대통령은 '임명 강행' 가능성 커
내달 '국회 휴지기' 9월 국감 준비에
18일까지 통과 안되면 사실상 무산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로 추진하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이대로 가다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추경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당청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여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에 '송·조' 임명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뒤 야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려 했지만 김 원내대표의 거절로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당에서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우 원내대표 역시 한 명 낙마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당·청은 '임명 유예'로 협상의 시간을 벌었지만, 동분서주할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 명을 낙마시켜 협상의 길을 터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야(對野) 협상의 전권을 가진 우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협상의 희생양으로는 조대엽 후보자가 거론된다. 야 3당과 정의당, 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 송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정국의 실타래는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청와대가 현 난국을 타개하고자 '영수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의 동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정치 휴지기고, 9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가 핵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늘 정도에 (여야 협상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임시회는 아직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통과시키면 필요한 4일, 5일 이렇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결을 하고 또 충분히 심의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광호 기자 khlee@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安 '뒤늦은 사과'… 탈출구 안 보이는 국민의당

安 前 대표 정치 활동 중단 불가피
檢 이준서 이어 黨 지도부 수사 예고
내년 지방선거 전 지각변동 가능성
지역 기반 '호남 민심' 변수는 남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2일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태에 사과했지만 탈당 가시화와 국민 여론 악화 등으로 국민의당은 벼랑 끝에 섰다.

당분간 당 창업주인 안 전 대표의 정치활동 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박지원 전 대표 등 핵심 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제보 조작)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보는 검찰조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뤘다.

국민의당 전망은 더 어둡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을 시작으로 당 지도부 윗선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활동 당시 당 대표로 함께 선거를 치러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안 전 대표의 사과를 평가했다.

그는 '당 지도부 검찰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저희 당과 저는 수차례 검찰수사에 협력하겠다,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해왔다"고 원론적인 견지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공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데 대해서 우리 당으로선 굉장히 유감스럽다. 잘못된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의당을 기점으로 한 지각변동 가능성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당의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수습할 구심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당은 현재 이탈 움직임이 전혀 없고, 통합 가능성이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의 향배도 아직까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정용욱 기자 dragon@

국민들의 바람은…



광화문1번가 마감일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에서 관계자가 국민의 바람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5월 말부터 약 50일간 운영된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1번가를 통해 약 15만 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8월말께 접수된 제안을 분석·정리해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동근 기자 foto@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대통령에 보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다음주 경과보고 후 청와대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5가지 국가 비전과 4대 복합 혁신과제,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날 보고에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 실현 방안으로 대기업 갑질 근절과 국민연금 개혁, 규제 체제 재설계, 역동적인 자본시장 육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보고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리 5·6호기 '運命의 날' 중단 유력…갈등 더 커지나

한수원, 오늘 이사회 열어 안건 결정
원안위 뺀 일방적 결정에 '위법' 논란
인건비 등 석 달간 1000억 피해 추산
공기업 특성상 정책에 '반대' 어려워
노조 측 이사회 개최 원천봉쇄 방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요청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 구성을 감안할 때 13명 이사 중 7명 이상 찬성 시 건설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노조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위법 논란이 거센 데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영택 기획본부장, 전휘수 발전본부장,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외부에서 추천받은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과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개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노조는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의 저지선을 뚫고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한다면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피해 규모는 인건비 12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완전히 중단되면 피해액이 1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작업 중단 이후 현장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임금 보전과 일자리 승계 대책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현재 1700여 곳이며 현장 인원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예정대로 열려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6명의 상임이사가 모두 한수원 내부 임원으로 공기업 특성상 정부의 정책에 반대 표를 던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사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7명 중 한 명만 찬성표를 던질 경우 과반 찬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한수원 노조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이사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사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엘리 기자 ellee@

관광벤처기업 만난 도종환 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관광벤처보육센터에서 열린 관광벤처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6월 실업률 '최악'…2021년엔 청년 실업자 130만

'추경 필요성' 여론전 펼치는 기재부

각종 경제지표 자료 근거 내세워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달 넘게 표류하면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하는 경제동향 자료 발표 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잇따라 내놓은 경제자료를 내세워 국회의 일자리 추경 통과에 명분을 쌓고 있다. 하루 전에 기재부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 분석'에서는 정부의 기조가 여과 없이 반영됐다.

기재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난 해소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추경의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이틀 전에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그린북)'에서도 추경 문구는 빠지지 않았다. 그린북 발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직전에는 기재부가 청년층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13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기재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고용동향을 토대로 올해부터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에코붐(Echo-boom) 세대'로 인해 청년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1991~1996년생)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청년층 미취업 규모가 2018년 115만8000명, 2019년 124만1000명, 2020년 129만6000명, 2021년 134만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이라며 "때마침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패션그룹 형지 '여전한 甲질'

수급사업자들에 8억대 어음 수수료 未지급
작년 계열사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경고'

에스콰이어·엘리트·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 형지가 13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는 성주D&D도 정조준한 만큼, 패션업계를 향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어음대체 결제를 하면서 법정기한을 초과한 수수료 8억7679만 원 가량을 떼먹었다. 현행 상환기일은 어음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 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뒤늦게 미지급 어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과 '제조국명 : 한국' 라벨을 함께 부착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위탁하면서 어음결제 수수료와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성주D&D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아웃도어의류 업계로 선별 조사를 벌였던 공정위의 칼날이 패션업계 전반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의류업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과도한 클레임 비용 부과 문제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 빈번한 시장"이라며 "대기업형 패션브랜드 업체의 비용 절감에 따른 대리점 폐지 등의 문제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규하 기자 judi@

'中企 氣살리자'…김상조, 납품단가 조정 협의·전속거래 구조 손본다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협상력 높여 중소사업자 지위 향상…과징금 등 행정 제재 강화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들의 지위 향상과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부당 단가인하·교섭력 약화 원인인 전속거래 구조도 손질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향후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분석,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규하 기자 judi@



‘면세점 게이트’ 수사 … 국정농단 연장선상에서

檢, 朴 뇌물죄 조사 특수1부 배정 … 최순실 연관도 겨냥
롯데 사업권 탈락 과정 밝히며 대기업과 유착 정조준

검찰이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검찰 최정예 부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투입, ‘면세점 게이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특수1부를 이끄는 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부서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관세청을 넘어 다시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인 최 씨가 다시 한번 검찰의 사정권에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정권과 대기업 사이의 유착관계에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터라,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8월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전 정권 실세들과 대기업의 유착 관계를 정조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2015년 7월 24~25일 7개 재벌 그룹 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롯데는 제외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권이란 카드를 쥐고,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집행액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롯데 입장에서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탈락이란 쓴맛을 보게 한 뒤, 이후 추가 선정을 미끼로 정부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롯데가 당초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도, 이보다 많은 75억 원을 추가로 요구받고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심사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세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들에게 특혜를 받은 한화그룹, 두산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1차 심사에서 특혜를 받았던 한화와 두산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원 과정과 면세점 입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K재단에 각각 25억 원, 11억 원을 출연했다. 한화는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15억 원, 2016년 K스포츠재단에 10억 원을 냈다. 두산은 2015년 11월 미르재단에 7억 원, 2016년 K스포츠재단에 4억 원을 냈다.

안철우 기자 acw@

학자금 대출금리 2.5%→2.25% 인하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2.5%에서 2.25%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0.25%포인트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대출자 100만 명과 신규 대출자 35만 명이 올해 2학기에만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자 1명이 아낄 수 있는 이자는 연평균 약 1만4400원이다.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는 2009학년도 2학기에 연 5.8%에서 점차 낮아져 2016학년도 2학기와 올해 1학기엔 연 2.5%까지 떨어졌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엄마도 변호인도 놀란 정유라의 럭비공 증언

이재용 재판서 ‘말 세탁 공모’ 언급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도 나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던 정유라(21) 씨가 12일 돌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는 “엄마(최순실 씨)가 삼성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털어놓는 등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정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3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정 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제가 엄마에게 말 ‘살시도’를 구입하자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럴 필요 없이 계속 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말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 씨는 살시도가 삼성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선수에게 말이 넘어갈까 봐 아예 구입하자고 한 것이었다.

정 씨 진술에 따르면 정 씨는 말 ‘비타나V’와 ‘살시도’를 각각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꾸기 하루 전 최순실(61) 씨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 등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현지 승마 코치인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로부터 들었다. 이른바 ‘말 세탁’이 이뤄지기 전 3명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이 드러날까 봐 삼성에서 캄플라데를 통해 말 세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씨의 행보에 삼성 측 변호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 측은 반대신문에서 “출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나쁘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해 특검 질문에 모두 대답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씨는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검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판사님이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영장을 3차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끝을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 종결 계획을 밝혔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기되는 8월 27일 전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폭염 속 독서 삼매경



초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2일 더위를 피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고 주말에는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고아란 기자 photoeran@

‘ING운용 채권 파킹’ 항소심도 유죄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억3108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브로커 등 10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이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장부 외 거래’의 일종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불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권 파킹 거래가 투자자가 예상한 위험 범위를 초과해 운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면서도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채권을 증권사 계정에 파킹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씨 등이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자일임재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500가구 이상 아파트 제세동기 없으면 과태료

앞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12월 3일부터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5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춰 쓰러졌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장비다.

박은평 기자 pepe@



올여름, 우리 가족의 기대작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여름 휴가 영상은
이번 시즌도 흥행 예감

숨은 조연이 하나 있다면
당신의 노트북 안에서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반도체 아닐까요?

안에서
밖을 만들다

주연 배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할머니 ★★★★★)

내가 사준 의상이 나와 뿌듯하다
(고모 ★★★★★)

아빠도 아닌데 보는 내내 아빠미소
(삼촌 ★★★★☆)

SK hynix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당신의 열정을 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참여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 **접수 기간 :** 2017. 6. 28 – 7. 31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응모 http://openidea.skhynix.com

이동걸, 박삼구 조기 해임안 꺼내나

〈KDB산업은행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회장, 작년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D' 준 채권단 원색적 비난
오늘까지 상표권료 수정안 동의 없으면 해임 추진 상정 가능성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타이어가 2016년 경영평가에서 'D'(부진)를 준 채권단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해임안 카드를 조기에 꺼낼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을 비롯 이한섭 사장 등 금호타이어 경영진의 조기 해임 결의를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 해임 권고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당초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 회장의 해임을 바로 실행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금호타이어가 2년(2015~2016) 연속 D를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건을 갖췄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 이를 자제했다. 매각이 완료돼 금호타이어 대주주가 바뀌면 경영진은 자연스레 교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을 바꾸면 서로 간의 감정만 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채권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서자 기류가 바뀌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경영평가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제2의 면세점 허가 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을 전 정권 인물로 해석하는 정치 논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은 등 채권단 내부의 분위기는 격앙됐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절차대로 진행돼 완료되면 이 모든 논란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가치를 낮춰 재인수를 추진할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에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5년 10월 채권단에 "경영개선 이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영업실적 악화가 지속될 경우 주주협의회의 어떤 조치도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이행서를 제출했다. 당시는 금호타이어가 분기(2015년 3분기) 기준 6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때다. 5년 6개월 만의 적자였다. 이 때문에 채권단 일부에서는 박 회장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13일 오후까지 금호타이어 상표권료와 관련 금호산업의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은 금호산업이 답변 시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들은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 때 박 회장의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앞서 채권단은 이달 7일 금호타이어 상표권료는 연 매출 대비 0.5%, 사용기간 12.5년을 금호산업에 제시했다. 금호 측 안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2011년 정보유출 사건 잊지 마라" 조직 내 정보보안 강조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보보안 리마인드 캠페인' 진행
디지털 업무 증가에 내부 단속 강화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6년 전 정보유출 사건을 되새기며 조직 내 정보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정보보안 리마인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DON'T FORGET 2011(2011년을 잊지마라)'이란 문구를 담은 캠페인 홍보물을 회사 곳곳에 배치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 부회장이 직접 정보보안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정보보안실장은 안철수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성학씨가 맡고 있다.

정 부회장이 정보보안 강조에 나선 배경은 최근 디지털 업무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등 업무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이 커진 만큼 내부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2011년 해커의 전산망 침입으로 고객 17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당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현대캐피탈이) 고객 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고객 정보 관리에 임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정 부회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홍역을 치른 정 부회장이 '디지털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카드는 2015년 10월 '디지털 현대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초 KB금융 임원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 "앞으로 이익의 20%를 디지털 개발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 분야 전문가를 5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홍보실에서는 (직원들이 보는) 스크랩에 월요일마다 해킹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반영하고 있다"며 "캠페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성화재, 설계사 통해 서류 없이 전자청약으로 보험가입



삼성화재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모든 보험가입 절차를 종이서류 없이 전자청약만으로 완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청약서부본, 약관, 보험증권 등 청약서류를 고객에게 모바일로 바로 전달 가능하다. 기존의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자청약의 경우, 태블릿 PC로 전자서명을 하더라도 청약서부본 등 서류를 종이로 따로 전달해야만 했다. 때문에 전자문서를 출력해 고객과 보험설계사가 다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는 고객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도록 인증방법을 강화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약서부본과 보험증권은 암호화 처리 후 제공해 고객이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하나銀,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HAI' 출범

〈하이〉

Happy 금융의 'H'·인공지능 'AI' 합성어
콜센터 상담봇·모바일 챗봇 등에 브랜드 사용

KEB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 브랜드 'HAI(하이)'를 출범하고, 첫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 'HAI Robo(하이 로보)'를 선보인다. 'HAI Robo'는 지난해 3월 국내은행 최초로 출시한 로보어드바이저 'Cyber PB'를 기반으로, 정교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해 인공지능의 체계성과 온라인의 편의성을 결합했다.

하나은행은 13일 "'HAI'의 출범과 함께 첫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HAI Robo'를 출시했다"며 "향후 출시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뱅킹서비스, 콜센터 상담봇, 모바일 챗봇 등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HAI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HAI(하이)'는 하나금융그룹이 추구하는 행복한(Happy) 금융의 'H'와 인공지능 'AI'의 합성어로, 손님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하는 '하이(Hi)'의 의미와 수준 높은(High)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HAI Robo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과거 수익률, 변동성 외에도 자산 분산도, 비용 효율성,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작년 11월 국내 최초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개념 대화형 금융플랫폼인 텍스트 뱅킹 서비스에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는 'HAI banking(하이 뱅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HAI banking을 통해 문자메시지의 대화형 방식으로 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은 "HAI Robo를 통해 그동안 자산 규모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손님도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손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최적의 생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적인 금융 개인 비서로 HAI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12일 KEB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 브랜드 'HAI'(하이)를 출범하고 첫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 'HAI Robo'(하이 로보)를 선보였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삼성-하만 합작 '시네마 LED' 막 올렸다

세계 첫 극장전용 LED 스크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 설치
영화에 최적화된 4K 해상도
기존 영사기보다 10배 이상 밝아
'하만 기술력' JBL 스피커 적용



삼성전자 모델들이 13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영화 상영관 'SUPER S'에서 세계 최초로 설치된 '시네마 LED'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하만이 협업해 내놓은 세계 최초 극장전용 LED 스크린 '시네마 LED' 스크린의 막이 오른다.

삼성전자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시네마 잠실 월드타워에서 시네마 LED 설치한 영화 상영관을 공개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롯데시네마와 협력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영화 상영관 'SUPER S'에 세계 최초로 시네마 LED스크린을 설치했다. 향후 설치 상영관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시네마 LED는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극장 전용 LED스크린으로, 120여 년 역사의 영화 산업 판도를 바꿀 혁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변호인'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2017년 7월 13일은 영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며"120여 년의 영화 역사에서 직접 광원을 적용한 시네마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보는 것은 혁신적 변화"라고 말했다.

SUPER S관에 설치된 시네마 LED는 LED 캐비닛 96개를 활용한 가로 10.3m 크기로,영화에 최적화된 4K(4096x2160) 해상도를 자랑한다.기존 프로젝터 기반의 극장용 영사기의 밝기와 명암비 등의 한계를 극복한 극장 전용 LED 스크린이다. 제품은 LED 소자가 빛을 내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디지털 시네마 표준 규격인 DCI의 화질과 보안 기준을 만족하는 극장 상영 조건에 최적화된 영상 장비다.

기존 '프로젝터 램프'와 비교할 때 약 10배 이상 향상된 밝기(최대 500니트)로 암실뿐 아니라 밝은 환경에서도 각종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어 영화는 물론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차세대 핵심 영상 기술인 HDR을 지원해 앞으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은 명암비가 대폭 향상된 생생한 화질의 HD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폭스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주요 영화 제작업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HDR 영화 콘텐츠 확대를 위한 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극장 사운드 시스템의 경우, 이 분야의 선두 주자인 하만의 JBL 스피커가 새롭게 설치됐고 하만의 사운드 전문가가 직접 튜닝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김현석 사장은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영사기가 필요없는 시네마 LED스크린을 상용화했다"며"삼성전자가 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현장의 중심에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역대급 가성비 무장… 새바람 몰고 올 것"

기아차 소형SUV '스토닉' 출격

디젤SUV 중 유일한 1800만원대
17.0㎞/ℓ 연비도 동급 최고 수준
사전예약 절반 20~30대 '취향저격'



"국내 소형SUV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13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스토닉(사진)'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스토닉은 이날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박한우 사장은 "스토닉은 소형SUV 고객의 3대 니즈인 경제성, 스타일, 안전성을 고루 겸비한 차"라며 "스토닉의 균형잡힌 상품성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소형SUV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닉은'2030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도심형 콤팩트 SUV'를 목표로 개발됐다"며 "벌써 2030세대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스토닉 사전계약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부터 30대까지의 비중이 약 57%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계약고객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로 스토닉이 첫 차 구매고객 및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뛰어난 경제성과 민첩한 주행감, 젊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스토닉의 중점개발방향으로 설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소형SUV의 한계를 넘어선 최고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뿐 만 아니라 스토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국내 디젤SUV 중 유일하게 18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된 것이다. 연비 측면에서도 스토닉은 17.0km/ℓ의 동급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한편, 기아차 스토닉은 1.6 디젤 단일 모델로 출시되며 총 3개 트림(디럭스, 트렌디, 프레스티지)으로 운영된다. 가격은 △디럭스 1895만 원 △트렌디 2075만 원 △프레스티지 2265만 원이다.

문선영 기자 moon@

SK하이닉스, 도시바메모리 끝까지 포기 않겠다지만…

박성욱 부회장 '나노코리아2017'서 재차 강조… 인수작업 지지부진
연합컨소시엄 계약 지연… 美 WD·대만 홍하이와 교섭 재개설까지


1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나노코리아 2017' 개막행사로 열린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에서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바메모리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박성욱 부회장이 지분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17'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시바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도시바와 상당히 오랜 시간 협력해 왔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끝까지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일본 민관 공동투자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 일본 정책투자은행,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은 지난달 21일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도시바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원래 기술 유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와 미국과 유럽 당국의 독과점규제를 피하고자 베인캐피탈에 투자하는 방식의 간접 투자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털과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투자 자금 일부를 향후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로 조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SK하이닉스가 추후에 도시바메모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당초 도시바와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계약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도시바가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국 웨스턴디지털, 대만 홍하이정밀 등 인수 희망의사를 밝혔던 다른 업체들과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부회장은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박 부회장은 '메모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D램과 낸드플래시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미래의 메모리 기술의 핵심으로 '나노 소재'를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나노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해야한다"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차세대 메모리로는 PC램이 유력하고, STT-M램 개발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 매출·가맹점수 급증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 19개 브랜드 최다 보유
작년 가맹점수 1057개… 3년 새 119.3% 늘어
외식업계 고전에도 가성비 앞세워 성장세 지속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최다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로 꼽힌 가운데 매출과 가맹점수도 급증하면서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2015년 동안 기존 19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482개에서 1057개로 119.3% 급증, 7개 가맹본부 가운데 최다 브랜드를 보유했다. 주력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2013년 196개에서 2015년 174개로 줄었으나 '홍콩반점'이 100개에서 148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2개에 불과했던 '빽다방'이 415개로 급증하면서 전체 가맹점 증가를 주도했다. 빽다방은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커피를 제공하던 것이 인기를 끌자 스핀오프해 브랜드화한 것이다. 이밖에 한식 브랜드 '본가'(38→48개)와 '백철판 0410'(1→16개), '역전우동'(11→42개) 등의 브랜드 가맹점 증가가 두드러졌다.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공격적인 영업과 신규 브랜드 등의 증가에 힘입어 실적 증가 폭도 가장 컸다. 2013년 775억 원이던 매출액은 2015년 1239억 원으로 59.8% 늘었다. 영업이익은 51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117.2%, 순이익은 2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139.6% 증가했다. 작년에는 매출액 1749억 원, 영업이익 198억 원, 순이익은 192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 회사 지분 76.69%를 보유한 백종원 대표이사가 15억여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의 가맹 브랜드들이 대중적인 메뉴와'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식당들이 대부분이어서 불황 장기화로 외식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도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한화, 태양광 사업 속도… '솔라파워'에 1100억 투입

연말까지 유상증자 방식 투자 결정
사업 개시는 올해말이나 내년초쯤

한화가 한화솔라파워에 연내 11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사업 강화에 본격 나선다.

13일 한화종합화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연말까지 계열사인 한화솔라파워에 1100억 원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일환으로 지난 7일에는 45억 원을 투입해 보통주 90만 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화솔라파워는 한화종합화학이 지난달 100% 출자해 세운 태양광 부문 자회사로,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던 차문환 상무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한화솔라파워는 태양광 발전의 투자·영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장에 개인용 소규모 발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을 대상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한화큐셀코리아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듯이 규모가 큰 발전 사업 역시 진행할 여지가 있다.

본격적으로 한화솔라파워가 사업을 시작하면 한화그룹은 태양광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솔라원,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태양광 발전을 하는 한화솔라파워로 이어지는 태양광 사업 수직 계열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솔라파워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라파워 관계자는 "현재 사내 이사들만 있고 인력을 구성하는 단계"라며 "국내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한다는 큰 구상 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IFA2017' 위상 높아진 중화권 업체

궈 타이밍 폭스콘 회장·리차드 위 화웨이 CEO 기조 연설 맡아


궈 타이밍 폭스콘 회장


리차드 위 화웨이그룹 CEO

궈 타이밍 폭스콘 대표가 유럽 가전쇼 무대에 첫 데뷔한다.

12일 유럽가전쇼 IFA를 주최하는 베를린 메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A2017에서 궈 타이밍 회장은 개막 다음날인 2일 'IFA 넥스트(홀 26)'에서 세계적인 부품 공급업체로서의 브랜드 전략과 철학 등을 공유한다. 궈 타이밍 회장이 유럽에서 기조 연설 무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궈타이밍 회장은 폭스콘 브랜드를 보유한 훙하이 정밀공업의 창업주이자 지분 13%를 보유한 대주주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주문자 생산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했던 궈 회장이 지난해 일본의 샤프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인물이다.

전 세계 무대에서 중화권 업체의 위상이 커지며 궈 타이밍 회장 뿐 아니라 리차드 위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CEO도 3일 기조 연설을 맡는다. 리차드 위는 CES2017에서도 화웨이의 신제품과 브랜드 전략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기조 연설에서도 향후 화웨이의 전략 및 하반기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IFA2017 오프닝 기조연설은 일찌감치 필립스의 헬스부문 피터 노타 CEO로 정해졌다. 피터 노타는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헬스케어의 강점을 설파하는 한편 전통적인 치료를 넘어선 소비자 의료 혁신 제품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IFA는 전시 규모 면에서 최대 규모다. 또한 그간 신생기업과 연구소 등을 위해 운영한 전시관 테크워치를 재정비한'IFA 넥스트'전시관이 신설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유가하락·수요증가 연이은 호재

LCC는 '고공비행' 중

맥을 못 추는 국제유가에 항공업계가 높이 날아 오르고 있다. 성수기 진입, 일본·동남아 여객 수요 증가 등 호재가 이어져 저비용항공사(LCC)의 약진(躍進)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LCC의 6월 국제선 여객수는 484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유임 여객(정상운임의 25% 이상을 지불한 승객)수는 전년동월대비 44.9% 증가했다. 반면 대형 국적사(FSC)의 여객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유럽과 미국노선이 회복되었으나 단거리노선 경쟁에서 LCC에게 수요를 빼앗겼고 가장 부진했던 중 국노선의 여객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LCC의 국제선 여객점유율은 2016년 19.6%에서 2017년 6월 26.0%(2Q17 25.6%)로 상승했다.

이는 2분기에 단거리 노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일본과 동남아 중심으로 공격적인 증편에 나섰다. 또 해외여행 수요의 구조적 증가도 한 몫했다.

성수기인 3분기에는 LCC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항공사 고정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황윤주 기자 hyj@

유통업계 "사용하다 깨지면 새 제품으로 바꿔드려요"

신뢰까지 깰 순 없다…통큰 '보상 서비스'

11번가 '고객실수보상제' 지난달까지 7600건 처리

英 덴비 '반값 프로모션' 안쓰는 제품, 새 걸로 교환

로얄코펜하겐 '파손 보증' 무상교환 기간 1년→2년

"아이 선물로 닌텐도를 구매했는데 금세 고장 나버려서 수리비용을 11번가에서 포인트로 보상받았습니다.","검정 레더 재킷 완전 신상품인데 조개구이 먹다가 그만 불에 그을려 버렸어요. 99% 쿠폰과 1% 포인트로 다시 구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11번가 고마워요!", "신상구두 친구랑 만나서 여기저기 신고 다니다가 심하게 넘어졌는데 찢어졌어요. 11번가에서 보상해 주셔서 이제 조심조심 신고 다닙니다."

11번가가 실시하고 있는 고객실수 보상서비스에 대한 고객 반응이다. 유통업계가 쓰지 않는 제품을 보상해 혜택을 주거나, 파손 상품을 교환해주는 제도를 통해 탄탄한 고객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11번가는 2008년 오픈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온라인쇼핑 환경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2009년부터 고객의 실수로 인한 파손까지 책임지는 '고객실수보상제' 운영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고객실수보상제'를 통해 처리한 고객 보상 건수는 약 7600건에 이르는 수준이다.

'고객실수보상제'란 수리비용을 보상해주거나 동일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쿠폰과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구매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11번가에 보상신청할 수 있다.

영국 프리미엄 테이블 웨어 덴비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덴비가 입점된 전국 55개 백화점 매장에서 브랜드 상관없이 50%를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로얄코펜하겐

이번 프로모션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자 제품을 가지고 덴비 매장을 방문하면 1개당 덴비 제품 1개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1인당 최대 10개 한정으로 진행된다.

이미경 덴비코리아 마케팅팀 부장은 "경험과 취향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좀 더 다양한 덴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덴비코리아 설립 이래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상판매에 대한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평균 한달간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이번 보상판매를 통해 소진된 것이다.

이 부장은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평소 사용하고 싶었던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덴비코리아 정식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병행 수입 제품과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얄코펜하겐은 업계 처음으로 파손보증제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매장 구매 제품이 보증 기간 내 파손될 경우 제품과 보증서를 지참하면 동일한 제품에 한해 1회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지난 2015년 해당 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혜택 폭을 확대했다. 소비자 과실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역시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내외 IT기업들 'AI 스피커' 볼륨 높인다

글로벌·국내 통신사·포털 등 인공지능 탑재한 제품 개발 박차

카카오 3분기 '카카오미니' 출시…음성대화로 멜론·다음 이용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피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음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거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등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의 스펙을 공개했다. 오는 3분기 출시 예정인 카카오미니는 카카오의 인공지능 음성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기기다.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물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검색포털 '다음' 등이 연동돼 음성대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미니를 시작으로 이용자들이 카카오의 인공지능 음성 인터페이스를 가정과 자동차,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스피커 '웨이브'를 지난달 일본에서 처음 공개했다. 웨이브에는 인공지능 '클로바'가 탑재돼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 카카오 '카카오미니'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알리바바 '티몰 지니' 사진제공 각사

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 SK텔레콤의 '누구'와 KT의 '기가지니' 등이 시장을 형성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연내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의 '누구'는 최근 10만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KT의 '기가지니'는 연내 50만대 판매가 목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공룡 기업들까지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음성인식 기술을 구현하는데 스피커가 최상의 기기이기 때문이다. IT 기술 발달에 따라 가정에 있는 전자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이 떠오르고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를 연결하기에 특화된 제품이라는 것이다. AI 스피커가 검색부터 쇼핑, 엔터테인먼트, 교육, 가정기기 등을 총망라하는 'AI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를 서로 연동해 통제하는 하나의 '지휘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음성은 키보드나 터치 인터페이스처럼 배울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폰 터치 이후 음성인식이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통신사, 포털 업체들이 줄줄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고 있어 내년 최대의 경쟁 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한다면 시장을 선점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청년몰 사장님 힘내세요" 대형마트까지 '지원사격'

지난달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롯데마트, 유통판로 확장 돕기 안테나숍 형태 '청년마켓' 입점

지자체와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몰'이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 유행처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전통시장에 청년몰 조성을 시작한 것은 중소기업청이 2016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청년몰 조성사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청년몰 조성에만 127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인천 강화중앙시장에 지난 4월 문을 연 '개벽2333'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몰의 하나다. 인천시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5억 원을 더 보탰다. 도자기공방과 가죽공예점 등 일반점포 5곳과 음식점 15곳 등 20개 청년점포가 입주했다.

대전시가 동구 중앙시장 내 중앙메가프라자에 지난 6월 개장한 청년몰 '청년구단'도 이 사업의 혜택을 봤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5억원이 소요됐다. 현재 음식점, 카페, 공예점 등 15개 점포가 입주한 상태다.

구미시 선산봉황시장에 지난 6월 문을 연 '노브랜드 청년 상생스토어'는 이마트가 사업에 참여한 독특한 형태다.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마트 상생스토어는 지난해 8월 충남 당진전통시장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청년 상생스토어'는 이번이 첫 시도다.

이밖에도 부산 국제시장, 원주 중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전국에 청년몰이 들어서고 있다.

서울 대형마트 점포에도 들어선다. 롯데마트는 패션잡화 분야 청년 창업가들에게 유통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안테나숍인 '청년마켓'을 서울 양평점에 오픈한다. 안테나숍은 제품 홍보와 시장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의미한다.



지난달 이마트가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봉황시장에 오픈한 '노브랜드 청년 상생스토어'. 연합뉴스

'청년마켓'은 롯데마트가 지난해 선보인 '청년식당'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청년 창업가를 위한 브랜드다. 패션잡화 분야 청년 창업가들에게 유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마트는 '청년마켓'의 위치를 고객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1층 출입구 바로 옆으로 정해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이 매장이 노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몰 사업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업 초기에 받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점포 임차료를 12개월 이내 한도로 면제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일시적인 지원책이 대부분이다.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지만 지속적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다. 홍보도 대부분 공동으로 진행돼 점포 각각의 특징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몰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동 마케팅의 경우 사업 초기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며 "중앙사업단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서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점포의 매출과 제반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꽃들·이민호 기자 flowerslee@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NAVER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www.pdreamtech.co.kr

분양 접수중!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여의도 면적의 절반 / 사통팔달 교통망 / 인력수급 용이 / 평균분양가 170만 원대!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1만 평 대단지에서 완성되는 꿈의 산업단지-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 **꿈의 입지조건** | 고덕 국제신도시 4km, 삼성전자 산업단지 5km, 평택지원특별법 혜택 등 수도권 최적의 입지 및 투자가치
- **꿈의 분 양 가** | 전체 토지의 46%가 농지로 구성되어 주변 산업단지 70%수준의 파격적인 분양가 예정
- **꿈의 교 통 망** | SRT 수서~평택 19분, 어연 IC 500m, 평택항 15km, 5개 고속도로가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
- **꿈의 입주환경** | 대기업 입주 및 입주 업종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 유일의 산업단지, 고덕 · 청북 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인력수급 용이
- **꿈의 기반시설** | 인근 어연한산 산업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변전소 등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 입주시기 · 비용 단축

시행사 드림테크개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금융사 한화투자증권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입주 문의 1522-2577

‘사법방해’ 인정될까… 트럼프 탄핵론 다시 불지핀 ‘러 게이트’

美 하원 탄핵안 첫 발의…민주 “코미 해임, 사법방해 해당”
장남 ‘러 내통설’ 해명하려 공개한 이메일 강력한 증거로
레이 FBI 국장 지명자 트럼프와 선긋기… “특검팀 지원”

‘러시아 게이트’가 미국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탄핵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날 ‘사법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셔먼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터지고 난 뒤 줄곧 탄핵을 주장해왔다.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갑작스레 해임된 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코미 국장이 해임되고서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부상했으나 실제로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트럼프의 장남<왼쪽>인 트럼프 주니어가 작년 6월 9일 러시아 정부와 관련한 변호사를 만났고, 그 증거를 스스로 공개하면서 러시아 내통설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셔먼 의원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전날 트럼프 주니어가 내놓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주니어는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와 만남을 주선한 로브 골드스톤과 작년 6월 3~8일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골드스톤은 “내가 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한 고급 정보이며 출처는 러시아 정부”라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또 “이 정보가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도울 수 있다”며 “클린턴과 관련한 이 정보를 언제 받는 게 좋을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당신 말대로라면 매우 좋다(I love it)”라고 반색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만나 보니 베셀니츠카야는 러시아 정부와 연관도 없었고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트위터에 공개한 메일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파장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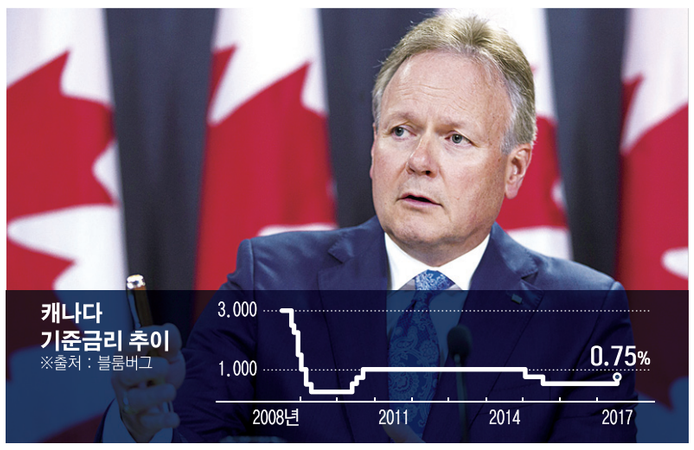
탄핵론이 처음 떠올랐던 시기는 지난달 초 코미 전 국장이 증언했을 때였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단 요구가 사실이었다고 밝히며 트럼프를 궁지에 몰았다. 코미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7일 7쪽에 달하는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서면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를 만나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단 둘이 회동했을 때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설의 몸통으로 꼽히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의미다.

코미의 증언은 트럼프가 수사 압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수사 개입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코미와 트럼프 대통령 간 진실게임은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손으로 넘어갔다.

코미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레이<오른쪽> FBI 국장 지명자는 12일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을 받았다. 인준 청문회에서 레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팀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개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레이는 특검 수사가 ‘마녀 사냥’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뮬러 특검은 마녀사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나는 법과 사실에 근거해 일을 추진할 것이고 그 외의 어떤 것도 FBI를 압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FBI 수장으로서 내가 외압에 휘둘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힌다. 한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레이는 트럼프와의 선 긋기에 열중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레이는 “누구도, 어떤 종류의 충성 맹세도 나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충성맹세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또 그는 “FBI 국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레이는 “FBI 국장과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일대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장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사위, 아들까지 줄줄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연루되면서 탄핵 정국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캐나다, 7년 만에 금리인상 세계 긴축 기조 급물살타나

제조업·서비스 등 경기회복… 주택값 상승도 긴축 부추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초저금리… 금융정책 정상화 가속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12일(현지시간) 약 7년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신호탄에 따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격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0년 9월 이후 6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BOC의 금리인상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조업과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기 때문.

특히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돼 부동산 시장 거품 우려가 나오면서 긴축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주 전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경제포럼에 참석한 린 패터슨 BOC 부총재가 캐나다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며 기준금리 인상 등 테이퍼링(경기부양책 규모 축소)을 시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날 스티븐 폴로즈 BOC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경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현재 기준금리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현 단계에서 미리 정해진 (통화정책의) 경로는 없다”고 말했다. 폴로즈 총재는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은 발표되는 지표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BOC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지만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쳤다. 그러나 폴로즈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 부진이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내년 중반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가 됐다. 이에 연준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정책에서 탈출하려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가 도미노처럼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총 4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그 사이 연준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미국 외 ECB와 영란은행 등이 금리인상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BOC의 결정이 다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보뱅크의 제인 폴리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앙은행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행동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게임이론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결정 시 환율 리스크를 줄이려고 최소한 다른 중앙은행들의 결정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룰라 前 대통령 실형 선고에… 브라질 시민들 반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2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현지 법원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부패혐의를 적용해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불거진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룰라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브라질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위대가 “룰라를 위한 교도소는 없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상파울루/AP연합뉴스

중국에 ‘굴복’한 애플 현지 데이터센터 건립

“인터넷 통제 애플이 부응” 비난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중국 구이저우성에 10억 달러(약 1조1430억 원)를 들여 중국 내 첫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에 총 4개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운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애플이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새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애플이 부응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다른 중국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승인된 사이버보안법은 많은 부분이 모호한 말로 채워져 있어 외국 기업에 어떤 부분을 강제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 기술기업인 애플이 중국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현지에 보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외국 IT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힘을 빼버린 셈이다.

애플은 구이저우성 정부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를 위한 전략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윈상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유한공사가 새 데이터센터 운영을 맡고 애플이 기술지원을 하는 형태가 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IBM 등 다른 서구의 IT 기업들은 수년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은 애플이 처음이다. 중국 본토에서 업로드한 사진과 문서 응용프로그램 동영상 등이 모두 현지에 저장된다. 또 중국 정부가 새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 고객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된다.

애플은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새 데이터센터는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를 유지할 것이며 시스템에 백도어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추가로 애플은 새로 통과된 중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이렇게 중국의 통제에 굴복한 것은 현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울며 겨자 먹기’식 조치라는 평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키워드로 보는 이슈 ‘기후변화’의 나비효과

농작물 피해 → 식료품 가격 인상 → 외식산업 영향

기온 오르면 노동 생산력 저하
미국인 기후변화 해결 기업 지지
세계 기업 재생에너지 속속 도입

‘기후변화’ 현상을 떠올리면 막연하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은 당장 기후변화의 피해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BBC는 기후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좌우하고 더 나아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작년 스웨덴 룬드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그 규모는 2030년까지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이상 고온 현상이 노동생산성을 갉아먹는다는 의미다. 미래 산업 관련 서적 ‘빅 피봇(The Big Pivot)’의 저자 앤드루 윈스턴은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가 일으킨 피해와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 고온은 식품 산업에도 타격을 준다. 미국 다코타 주에 있는 농가들은



중국 허난성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패널을 관리하는 사람들. 신화연합

지난 4주간 극심한 가뭄으로 밀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옵션셀러스닷컴의 제임스 코디어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밀 재배 상황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과일, 곡식 재배에서 피해를 보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외식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도 분주하다. 홍보대행사인 콘커뮤니케이션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87%가 기후변화 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기업 제품을 사고 싶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부터 페이스북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CEO)들이 분노를 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와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는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사퇴하기까지 했다.

세계적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니레버도 이러한 흐름을 의식한 기업 중 하나다. 유니레버는 203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력,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코카콜라,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혜택을 보는 산업도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이다. 2014년 1분기 영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지열,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채용이 32.9%를 차지하며 신규 채용 산업 중 세 번째로 비중이 컸다. 반면 지난 3년간 영국의 전체 에너지 산업에서 석유, 석탄에너지 산업 채용 공고는 66.5%에서 47.7%로 줄어들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타라 싱클레어 경제학 교수는 “이 통계가 영국에 국한된 수치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같은 패턴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가맹점주 만족도 높이니 매출도 올랐죠"



박현종 bhc 회장이 12일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신제품 발표회 및 독자경영 4주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bhc치킨

독자경영 4년만에 3배 성장…박현종 bhc치킨 회장

취임 직후부터 상생경영 집중
'신바람 광장' 소통 채널 구축
'e-쿠폰' 정산시스템 개선 통해 소비자 구매일 3일내 결제 완료
인테리어 비용 평당 30만원↓
창업자 문턱 대폭 낮추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독자경영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3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2013년 7월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 그룹에 매각해 독자경영을 시작한 bhc치킨은 매각 당시 매출(827억 원)보다 181% 성장한 지난해 2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같은 매출 성장세를 이끈 주역인 박현종(54) bhc치킨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 전년 대비 26% 성장했으며, 추가 인수했던 회사까지 합하면 3600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bhc 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삼성전자 출신의 전문 경영인이다. 26년간 삼성에서 근무한 후 2012년 외식 업계에 첫발을 들였다. 통상 프랜차이즈업계는 창업주가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bhc치킨은 박 회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해 경영과 조직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취임 직후부터 가맹점과 소통을 강화하는 상생경영에 집중했다는 그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신바람 광장'을 구축해 가맹점주의 의견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했다"며 "실제로 신바람 광장을 통해 기존 10단계의 조리 과정을 R&D를 통해 3단계 줄였다"고 말했다.

'e-쿠폰' 정산 시스템 개선도 가맹점주 만족도를 높였다. 업계 관행으로 최대 55일 걸렸던 결제를 소비자 실질 구매 기점으로 3일 이내 정산하도록 앞당겨 가맹점의 원활한 유동성을 지원했다.

예비창업자의 문턱도 낮췄다는 박 회장은 "평당 160만 원이던 인테리어 비용을 130만 원으로 낮췄다"며 "오픈 시 필요한 설비들이 독자경영 전 일반 시장가보다 높게 공급되던 것을 인터넷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불합리한 업계 관행을 대폭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사 정책으로 가맹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가맹점 수는 2013년 806개에서 지난해 1395개로 73% 늘었다. 약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매장당 연평균 매출도 같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2013년 1억4200만 원이던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지난해 3억1300억만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경영 강화 방안도 내놨다. 박 회장은 "치킨 한 마리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펀드를 조성, 소외 계층에 기부할 계획"이라며 "직영점을 열어 운영하다 청년 사업가에게 매장을 분양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1년 넘게 구조조정 펼친 이인우 사조동아원 대표

"한국제분 합병 마지막 단계…제분업계 1위 도약"

자산매각·부실 계열사 정리 등
작년 2월 그룹 편입이후 단행
차입금·부채비율 크게 떨어져
합병후 시장점유율 24.1% 3위


이인우 사조동아원 대표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사조그룹

"2020년에 제분업계 1위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인우 사조동아원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제분과의 합병을 통해 2020년 제분업계 리딩컴퍼니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조동아원의 전신인 동아원은 제분과 사료사업 호황기에 무리한 사업 다각화로 재무구조가 훼손됐다. 사조그룹은 지난해 2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동아원·한국제분을 인수했다. 사조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사조컨소시엄은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한국제분 지분 88.97%를 확보했다. 한국제분의 계열사인 동아원 역시 이때 사조그룹에 편입됐다.

이번 합병은 사조동아원이 모기업인 비상장사 한국제분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다. 합병 비율은 1대 6.758로 산정됐다. 합병 주주총회는 이달 27일, 합병 기일은 다음 달 31일이다. 신주 상장일은 9월 19일로 결정됐다. 합병 후 최대주주는 한국제분(지분율 34.99%)에서 사조씨푸드(지분율 23.82%)로 변경된다.

사조동아원은 지난해 2월 사조그룹 편입 후 제분과 사료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부실 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제분업계 위상 강화, 내부적인 업무통합, 2차적인 재무구조 및 손익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사조동아원은 부채 비율이 550.2%에서 317.9%로 232.3%포인트가 줄고, 영업이익률은 6.4%에서 7.4%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은 24.1%로 관측된다. 이는 국내 1위 CJ제일제당(25.9%), 2위 대한제분(24.2%)의 시장 점유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이 대표는 "회계법인이 한국제분과의 합병 뒤 사조동아원의 자산가치가 1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열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 mjk@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생수 김연아 '강원평창수' 모델로

피겨여왕 김연아(27·사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먹는샘물인 코카콜라 '강원평창수'의 전속모델로 선정됐다.

코카콜라는 "동계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김연아는 강원평창수가 추구하는 제품 브랜드 철학과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6년 연속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12일 설명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연아는 지난 5년 동안 강원평창수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왔다.

강원평창수는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가 담긴 새 제품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인사

◆**한양건설** 〈신임〉 △공사관리팀 상무 김태형

◆**ING생명** 〈신규 임원 선임〉 △IR부문장 함영중

◆**우석대** △교무국제처장 이성철

부음

▲**유계옥**씨 별세, **안양수**(KDB생명 사장)씨 부인상 = 1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00

▲**조장우**(전 삼성생명 상무)씨 모친상, **박해연**(전 동래여상 교사)씨 시모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02-3410-6901

▲**김정순**씨 별세, **영국**(키움증권 상무)씨 부친상 = 12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4일, 031-787-1501

▲**박준순**씨 별세, **윤종호**(진천군 예산팀 주무관)씨 모친상 = 12일 청주의료원, 발인 14일, 043-279-0156

"하반기 출시될 S-클래스 모델에 커넥티트카 기능 갖춰"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
상반기 판매량 압도적 1위
E-클래스 패밀리 완성으로
경쟁사와 격차 더욱 벌릴 것



사진제공 벤츠코리아

"하반기에는 S-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출시 등 라인업 강화에 나서겠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사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은 12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메르세데스 서머 나이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실라키스 사장은 이날 "사실 내년쯤 월 7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한국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벤츠가 팔리는 국가이자 중국과 미국에 이어 S클래스가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총 3만7723대 차량을 판매하며 전년 대비 54%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인기 모델인 S-클래스 부분변경 모델을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 뉴 E-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 등 2개의 신차를 더해 E-클래스 패밀리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클래스 부분변경 모델에는 커넥티트카 서비스를 갖출 계획이다. 실라키스 사장은 "KT와 손잡고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S-클래스를 시작으로 다른 모델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휴대폰을 가지고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메르세데스-벤츠의 디지털 쇼룸이 메르세데스-AMG 퍼포먼스 센터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으로 문을 열 예정"이라며 "인프라 확대에 따라 신규 채용도 늘려 올해 말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 네트워크의 총임직원 수가 45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여성 인물사전 〈153〉 순비(順妃)

7남매 낳은 과부로 고려 충선왕과 재혼

순비(順妃·?~1335)는 고려 충선왕의 제6비이다. 양천 허씨로, 아버지는 첨의중찬을 지낸 문경공(文敬公) 허공(許珙), 어머니는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최징(崔澄)의 딸이다.

허공은 처음에 정당문학(政堂文學) 윤극민(尹克敏)의 딸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낳았으며, 윤 씨가 죽자 다시 최징의 딸과 재혼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따라서 순비의 형제자매는 매우 많았으며, 이들이 모두 고관대작이 되고, 명문가와 혼인했다는 점에서 가문의 성세(聲勢)가 그야말로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순비는 처음에 종친인 평양공 왕현(王眩)과 혼인했다가 남편이 죽자 1308년 충선왕과 재혼, 순비로 책봉되었다. 재혼녀가 왕비가 되는 것은 고려시대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순비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이, 혼인 당시 이미 3남 4녀의 어머니였다는 점이다. 무려 아이를 일곱이나 낳았고, 그렇다면 나이도 결코 적지 않았을 과부를 왕비로 들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재혼에 대한 어떠한 금기도 없었으며, 처녀성에 대한 숭배 따위는 아예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재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마도 그녀의 미모였을 것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순비는 "아리땁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바탕이 선녀" 같았고, "연꽃도 고운 자태를 양보하고, 난초도 그 향기를 부끄러워"할 만큼 미인이었다 한다. 더욱이 그녀의 집안이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다는 점도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또 고려 왕실이 일부다처제라 단 한 명의 왕비를 택할 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간택 규정이 덜 엄격(?)했으리라는 점도 있다.

왕비가 된 순비는 6명의 충선왕 후비(后妃)들 중 특히 자신과 비슷하게 과부로서 왕비가 된 미모의 숙비(淑妃)와 불화하였다. 어느 날 순비의 집에서 연회를 열 때, 두 왕비가 다섯 번이나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미모를 경쟁했다는 기록도 있다.

순비는 충선왕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평양공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들 중 장남 순정군 숙(順正君 璹)과 셋째 회인군 정(懷仁君 禎)은 원나라에서 벼슬했으며, 둘째는 승려가 되었다. 큰딸 영복옹주(永福翁主)는 양양군 김대언(襄陽君 金臺彦)과, 둘째 연희옹주(延禧翁主)는 원나라 중서좌승(中書左丞) 길길반(吉吉反)과 혼인했다. 셋째는 원나라 인종의 백안홀독 황후(伯顔忽篤皇后)이고, 넷째 경령옹주(慶寧翁主)는 경양군 노책(慶陽君 盧頙)의 아내로, 그 손녀는 공양왕의 왕비가 되었다.

순비는 특히 백안홀독 황후 덕분에 원나라로부터 황실 여성들이 쓰던 관모(冠帽)인 고고(姑姑)를 하사받기도 하였으며, 원나라 궁궐에 가 황제를 조회하기도 하였다. 순비의 자식들을 볼 때 당시 명문가와 원 황실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순비는 1335년 사망하였는데, 그녀의 삶은 고려시대 귀족 가문의 연혼(連婚), 고려와 원의 통혼, 여성의 재혼 등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권순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정운찬 '동반성장硏' 지방분권 방향 모색

오늘 서울시청서 포럼 패널 토론



정운찬〈사진〉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와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와 동반성장연구소는 13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을, 정병순 서울연구원 실장은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넘어 포용적 성장,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지방분권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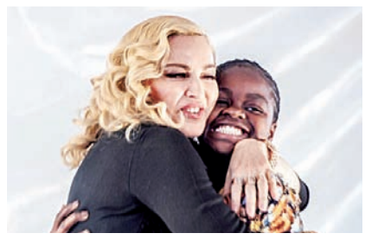
네 아이 입양한 마돈나, 阿에 어린이병원

말라위에 '더 머시 제임스 병동'
"치료 가능한 병으로 죽지 않길"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네 아이를 입양한 아프리카 말라위에 딸의 이름을 딴 어린이병원을 열었다고 AP·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돈나가 후원한 아동병원 '더 머시 제임스 소아외과·중환자 병동'은 말라위 최대 도시 블랜타이어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센트럴 병원 내에 문을 열었다. 병원 이름은 현재 체조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마돈나의 입양딸 머시 제임스에게서 따왔다.

마돈나는 2006년 아들 데이비드 반다를 시작으로 2009년 딸 머시 제임스, 작년 쌍둥이 딸 에스터와 스텔라를 말라위에서 차례로 입양했다.


말라위 어린이병원 개원식에 참석한 마돈나와 입양딸 머시 제임스 연합뉴스

이를 계기로 마돈나는 2006년 '레이징 말라위'라는 자선재단을 세운 후 말라위에 학교와 보육원을 세우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왔다.

마돈나는 개원식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 "어린이들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가정경영연구소장

아내 친구가 준 敎訓

아내가 16년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친구를 만나고 왔다. 아이들을 참 반듯하게 키웠다며, 착하고 대단한 친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부부와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미국으로 가기 전 부부 동반 모임을 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선하고 편안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여전히 좋았다. 내 나라 내 가족을 떠난 외국에서의 16년, 영주권이 없어서 더 힘들었을 세월 속에서도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낸 부부가 존경스러웠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을 크게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집 아이들의 독립심이나 신앙심은 남달랐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의 일부를 내고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그 경비의 일부를 꼭 부담했다는 태도가 놀라웠다. 신앙심도 독실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십일조로 아낌없이 바친단다.

집에 차가 없어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등교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와 반듯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한다.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아들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을까!

부부나 가족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피상적인 대화조차 안 하고 사는 가족도 많다. 하지만 아내 친구네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며 사는 가족이었다. 서로의 기대나 바람, 감정과 생각, 고민이나 상처, 가족이 처한 상황 등 모든 것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진정으로 '소통'하는 가족이었다.

아내의 친구는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있는 자신과 그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남편을 발견했다고 했다. 군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남편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파일을 보냈단다. 그리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감동했단다.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번 왕복 항공비도 아들이 마련해 주고 미래의 결혼자금도 스스로 준비한다며, 어려움과 결핍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부부는 겸손해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은 두 사람이 부러웠다.

아내 친구의 남편은 "귀한 집의 딸을 데려다 고생시켜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아내 친구는 "항상 내 얘기를 경청하고 내 편이 되어 주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지금껏 버틸 수 있었구나 생각하니 남편이 매우 존경스럽다"고 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아내 친구의 부부가 참 보기 좋았다. 잘 참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한결같이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부부가 저렇게 30여 년을 잘 살아내는 것도 능력이고 예술이구나' 싶었다.

성당을 함께 나가자고 권하면서도 아내가 냉담(冷淡) 중이라는 핑계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지 오래다. 참신앙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 부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반성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다.

방송과 강의 등에서 주장한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자부(自負)한다. 하지만 묵묵히 삶을 통해 실천하는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삶은 그다지 특별한 게 없어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이 부럽네요"라며 아내 친구는 겸손하게 말한다. 자신의 삶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까지 받은, 또 다른 부부도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이 알고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푸드 포르노와 권정생·이효리

네 사람이 맛있는 쇠고기 30인분을 먹었다며 볼록 나온 배를 연신 두드린다. 누가 입을 더 크게 벌리나 경쟁하듯 엄청난 양의 삼겹살 쌈을 입에 구겨 넣고 우적우적 씹는다. 요즘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가 쏟아내는 먹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 사람이 치킨 6마리, 삼겹살 5인분도 모자라 칼국수 3인분을 더 먹는 충격적인 식사 장면이 넘쳐난다. 엽기 전쟁터로 전락한 인터넷의 1인 먹방이다. 특정 식당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과 현란한 음식 사진이 즐비하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 과시의 장으로 변한 SNS이다.

TV와 인터넷, SNS상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먹방과 음식 사진을 보면 "보릿고개의 원혼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그 걸신들이 우리의 무의식에서 솟아나 저리도 게걸스레 먹어대는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비추고, 또 비추는 것인가"라는 배병삼 영산대 교수가 칼럼 '문화로 읽는 세상-낯 뜨거운 맛집 탐방'에서 행한 비판이 절로 수긍된다.

미국 CNN,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국 언론이 지적하듯 TV와 인터넷, SNS의 먹방은 푸드 포르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로잘린 카워드(Rosalind Coward)가 '여성의 욕망(Female Desire)'에서 처음 사용한 '푸드 포르노(Food Porno)'는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한 음식 관련 콘텐츠를 지칭한다. 음식의 맛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색감과 시각적 부분에 치중해 보는 사람의 식욕과 식탐을 자극한다. 기업과 미디어는 푸드 포르노를 먹방으로 위장해 사람들의 끝없는 식탐을 극대화해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한다.

TV, 인터넷, SNS에 넘쳐나는 푸드 포르노는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인식을 디자인하고 지배한다. 맛과 상관없이 화려한 색감과 과장된 분위기로 연출된 화려한 음식들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최고의 음식으로 등극한다. 푸드 포르노는 음식들이 지위와 계급, 부의 등가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음식들이 정신적 허기와 육체적 욕망을 진정으로 충족시켜준다는 확신을 하게 한다.

푸드 포르노의 포로가 된 수많은 사람이 미디어와 기업이 만들어낸 맛집(?)으로 돌진해 충족될 수 없는 식탐으로 무장한 위장의 포만감을 위해 아우성친다. 푸드 포르노의 화려한 음식을 향한 아우성이 커질수록 굶주리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푸드 포르노가 이기적 소비지상주의로 물들게 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망각시키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이 곧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30억 명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다. 푸드 포르노가 판치는 우리 역시 하루가 다르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폭증하고 있다. 과도한 식탐에 위장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세계 기아 실태와 원인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장 지글러(Jean Ziegler) 전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의 "굶주림으로 죽은 아이는 살해된 아이다"라는 주장과 세 끼 보리밥 먹는 생활에도 만족하며 주린 아이들을 늘 걱정하고 보듬었던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을 가지지 않을 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한 줄의 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음식 과소비와 낭비에 대항해 버려지는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덤스터 다이버(Dumpster Diver: 유용한 물건을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밀가루를 반죽해 직접 만든 칼국수와 김치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에 행복을 느끼는 이효리의 일상(jtbc '효리네 민박' 9일 방송분)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온다.

알쏭語 달쏭思

칼, 불, 손의 요리

서양 속설에 의하면 'r'자가 들어 있지 않은 달에는 굴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굴은 물론 익혀 먹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날것으로 먹는다. 달의 영문 표기에 'r'자가 들어 있지 않은 때는 May(5월), June(6월), July(7월), August(8월) 등 4개 달인데 이때는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다.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r'자가 들어 있지 않은 달에는 굴을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생긴 것이리라. 굴에서 시작된 'r'자가 없는 달을 기피하는 습속은 후에 생선회로도 확대되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생선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철을 가리지 않고 "생선은 역시 회로 먹어야 제맛"이라며 바닷가 피서에서 생선회를 빼놓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다.

날로 먹는 생선회가 발달한 나라는 역시 일본이다. 생선회가 발달하다 보니 생선회를 뜨는 예리한 칼도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해 일본에는 무사들의 '칼 문화'와 함께 요리에도 칼의 문화가 자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요리를 흔히 '칼의 요리'라고 한다.

일본의 생선 요리에 반해 불에 익힌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중국 요리이다. 중국음식점의 주방에는 언제나 세차게 피어오르는 불꽃이 있고 그 불 위에서 커다란 프라이팬을 마치 곡예를 하듯이 돌리며 땀을 뻘뻘 흘리는 요리사가 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불의 요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한국의 요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머니) 손의 요리'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식재료라도 어머니 손에 들어가 조물락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고소하고 정겨운 음식이 되어 나온다. 설령, 칼의 요리처럼 섬세하지 않고, 불의 요리처럼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필요한 요리는 역시 어머니의 손 요리가 아닐까? 손의 정성이 담긴 요리가 바로 보약이기 때문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토닥토닥

스위스 연구팀 "善行 베풀 때 행복 느껴"…역시, 나눔이 기쁨!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이 이끈 국제 공동 연구진은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 50명에게 4주 동안 매주 25프랑(약 3만 원)을 준 뒤, 한 그룹(대조 집단)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타인을 위해 돈을 쓰도록 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기로 한 실험 집단이 더 너그러운 경향을 보였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더 많았다. 특히 참가자들의 뇌 변화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게 너그러운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은 "나누는 기쁨을 함께 느껴봅시다", "진짜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 "현실에선 타인의 선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작년 여름, 각종 과자에 바다나 맛이나 망고 맛 등 '노란색 열풍'이 불었다면 올여름은 '초록 간식'이 인기입니다. 주인공은 멜론 맛과 와사비(고추냉이) 맛, 녹차 맛이죠. 비스킷에서부터 파이, 아이스크림까지 이 세 종류의 간식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색깔은 물론 원재료를 닮아 초록색인데요. 색다른 달콤함을 선물하는 멜론 맛 제품을 비롯해 무더운 여름 톡 쏘는 맛으로 사랑받는 와사비 맛 과자, 건강한 맛을 선보이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 등을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aGnQ6D



正論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道德性에 편중된 인사청문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행정 각부의 수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로 17년째 접어든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수행 자질을 검증하여 부적격자의 임용을 막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금까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도덕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해당 후보자의 도덕성이 국민의 감정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문 내용이 지나치게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도덕성 검증 위주로 흘러오지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문회에 적용된 대표적인 검증 잣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기초질서 위반, 탈세 등을 들 수 있다. 모두 개인의 이기심이나 준법정신에 관계된 것으로 이타성(利他性)을 필요로 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 덕목 평가에 요구되는 최소한이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요소들이 검증의 주를 이루어 왔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직무수행의 적합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거나 사퇴한 후보자를 본 기억이 없다. 이는 일단 추천된 후보의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났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의 바탕에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국회를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권력분립의 이념이 스며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문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구도와 맞물려 당초의 취지를 몰각(沒却)하고, '윤리청문회'에 치우친 반쪽짜리 청문으로 변질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청문회라면 굳이 국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맡긴 것은 정치가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정책 수행능력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도덕성도 해당 직무와 유관한 내용을 위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오늘날 국가경영은 정책 결정자에게 고도의 직관과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해 있다. 수요자인 국민이 공급을 결정하는 이른바 '온디맨드(on-demand)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때이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이에 힘입은 개인의 대(對)국가적인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도덕성만으로 국가를 경륜(經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부터 경륜이 저절로 나오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정책 수행능력 위주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미국의 인준청문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를 따르기에는 지금의 청문 기간이 턱없이 짧다. 적어도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또한 도덕성 문제는 서류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은 비공개리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 행태가 반복되는 한 후보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설령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의도한 대로의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청문회 피로감에 따른 공직 기피증으로 정작 적격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야말로 '쇠뿔 빼려다 소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부터라도 도덕성 일변도의 검증에서 벗어나 정책 검증의 장(場)인 인사청문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정 통제기관으로서 국회의 소임이다.

객석



김 도 현 삼성증권 해외주식팀 수석연구위원

성장 포트폴리오 완성은 해외투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폭넓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와 관련된 업종도 매우 광범위하다.

문제는, 국내 투자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투자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해외의 대표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제대로 된 글로벌 성장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 업종 중 하나로 부상하는 반도체업종의 예를 들어 보자.

메모리반도체 분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저평가된 멋진 투자 대안이 쏙쏙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들을 설계하는 분야나, 외부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파운더리 분야는 분명히 좋은 투자 대안이 해외에 존재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가지려면 이들 비메모리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테마인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투자 대안을 찾다 보면 차선책 정도는 가능할 것이나, 최선의 대안은 해외 기업 중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폭넓게 발전하는 글로벌 IT 산업의 스펙트럼을 다 포괄하며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성장 기업들을 뒷받침해 주는 IT 제품들에 대한 막대한 수요 기반 또한 해외 시장의 규모가 비교 불가능할 수준으로 넓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성장 기업들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싶다면 비중의 문제일 뿐, 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기자수첩



박 규 준 기업금융부/abc84@

보험소비자 외면하는 금융감독원

11일 저녁 7시, 한 시민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20년 전 동양생명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김모 씨는 예치 보험금 이자를 덜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동양생명이 '예정이율 + 1%(8.5%)'로 예치된 보험금을 부리(附利)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리이율을 이보다 낮은 정기예금 이율로 바꿔 버렸다"고 했다.

보험금을 예치하는 상품은 이제 팔지 않는다. 이 상품은 2000년대 전후 고금리 시기 한화, 교보,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앞다퉈 팔았다. 고액 예치금을 받아 돈을 굴려 높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저금리로 완연히 접어들자, 보험사들은 8.5% 이율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2015년 들어 예치이자에 소멸시효(消滅時效)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까지만 8.5%로 부리해 주겠다고 했다. 약관에는 '예정이율 + 1'로 부리해 주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부리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인 소비자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 '예정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준다'는 약관 내용을 보고, '3년까지만 부리해 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을까.

소멸시효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애초 약관에 2년 혹은 3년까지 부리해 준다고 명시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자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원금은 이에 무관하게 주겠다는 논리의 모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야 그렇다 쳐도, 금융감독원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담당부서인 금감원 감리실과 준법검사국은 "현장 점검은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시민단체는 "2년 전에 한 현장 점검인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내리고 있다"고 한다. 정말 칼을 빼 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2부 차장

'非전문가 장관' 우려 혹은 시기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공부하며 아이디어 도출에 집중해야 우리의 미래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취임식. 상투적인 일성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인사말에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임 장관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잠깐 내려놓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고 없이 풀어내는 심경에서 신임 장관의 절박함과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어진 취임 행사에서도 유 장관은 미리 준비한 원고나 틀에 짜인 겉치레를 거부했습니다. 기자실 브리핑룸에서는 손으로 턱을 괴거나, 소통을 강조하는 거침없는 언행 등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자, 몇몇 미래부 직원의 어깨에 손까지 올리면서 친근함을 드러냈지요.

장관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을 뿐, 결코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전임 장차관들이 심어준 선입견 탓에 유 장관의 모습이 어색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모든 게 낯설어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주무부처 책임자이지만, 스스로가 과학 분야 '비(非)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그의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고, 윽박지르기 위한 자리였으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산하 기관장들까지 서슴없이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새 장관을 둘러싼 그들의 하마평(下馬評)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심경이 엿보였으니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행(慣行)'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인사 방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선입견, 외교부 장관은 외무고시 출신이 올라야 한다는 편견 등이 보기좋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껏 미래부 장관은 물론 이전의 과기부처 수장까지 모두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과학자'였고, 논문을 줄줄이 풀어냈던 학계 교수들이었지요.

그러나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과학자라는 위상을 등에 업었던 그들이 이끈 과학기술 정책은 어땠나요? 현실을 외면한 연구 정책 탓에 실험실에서 땀을 흘리는 과학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의 관심 밖에 존재했던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은 어땠나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잠을 줄여 가며 근무하던 이들은 돌연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부처 정책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과학자와 전문가를 자처했던 이들이지만, 비현실적인 정부 정책 기조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조하고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예컨대 과기처를 시작으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던,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던 미래부 핵심 인재들은 이제 고향과도 같은 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엉뚱하게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투입됐다가 이들의 업무가 중소기업벤처부로 옮겨 가게 됐으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전문가 장관들이 이끌었던 미래부의 현실입니다.

신임 장관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미래부 안팎에는 비(非)전문가 장관을 우려하는, 아니 시기하는 눈길이 존재합니다. 새 장관이 이러한 편견이 기우에 그쳤음을 보여 주기를, 연구와 정책 현장으로 성큼 다가서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junior@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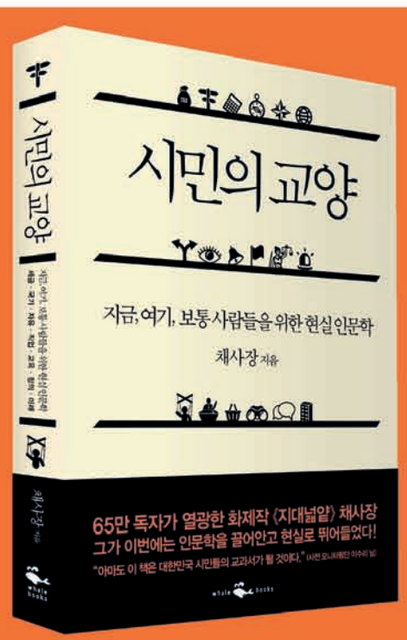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방향을 잃은 한국 사회
시민은 무엇을 알고, 말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똑똑한 시민이 세상을 바로잡는다

당신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어느 날 당신에게 빨간 버튼이 하나 배달되었고, 당신은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결정된다.
《시민의 교양》은 대통령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선택을 결정할 국가의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나며 이야기는 뻗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대가 다양하게 부딪히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짚어본다. 자유란, 정의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지.

* *

국가란 무엇인가? 물론, 항구적인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정의가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채사장, <시민의 교양> 중

채사장 지음 | 348쪽 | 15,000원 | 2015년 12월 whale books

"세입자 설움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3選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⓫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정치권에서 30년간 주요 요직을 지낸 3선 의원이다. 특히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평가한다. 김 장관은 198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새정치국민회의 정세분석실 부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현미(왼쪽)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약력 △전북 정읍(55) △전주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 예결위원장

전세금 인상 요구에 6번 이삿짐 싸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 취임 일성
박근혜 '수첩공주' 별명붙인 주인공
헌정사상 첫 여성 예결위원장 활약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공동대변인 당시 촌철살인의 어휘 선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며느리가 하와이에서 출산한 것을 두고 '원정출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붙은 '수첩공주'라는 별명도 그의 작품이다. 미운털이 박혀 2008년 총선 낙선 후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1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도 유명하다. 2008년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차고 있다는 발언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결국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장관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11번)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한 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밀려 낙선해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절치부심 김영선 의원을 누르고 당선돼 재선했으며, 20대 총선(경기 고양시정)에서도 당당히 당선돼 3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고, 19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지냈다. 여성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선대위에서 미디어본부장을 맡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순방했다.

남편인 백장현 씨와는 평화민주통일 연구회 사무실에서 만나 결혼했고, 현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다. 김 장관은 결혼 당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단칸방 월세방살이로 신혼을 시작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여전히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전셋돈 인상 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라며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 시장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혜의 폭을 넓혀 가겠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 장관은 아들만 둘이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날 23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청년 입주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 아들도 28살, 24살 다 학생인데 학교 앞에 자취를 시켜봤더니 월세, 용돈 등으로 한 달에 150만~200만 원은 나가더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고향 사랑은 특별하다. 취임 후 이달 1일 고향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해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의 낙후된 지역을 살피며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모친 신정순 여사와 함께 조부(김종문 제헌의원 지냄)와 부친(김병태 전 정읍시의회의장)의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 장관은 2016년 '제13회 자랑스런 전북인 상'을 받았다. 공공부문에 선정된 김 장관은 전북 예산 확보에 조력한 공로였다. 김 장관은 전북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북 의원들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장관은 특히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김제 과선교,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큰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토부 첫 여성 장관이다. 국토부는 다루는 분야가 건설이 메인이다 보니 남성적인 색채가 강하다. 실제로 국장급에서 여성은 김진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일하다. 본부 소속 과장도 4명에 불과하다.

5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여성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며 "국토균형발전·도시재생·일자리 창출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말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김현미 장관의 인맥

연세대·전북 라인… 박영선 의원과는 '언니·동생'

김진표·강경화 '연세대 라인'에 김한길 前 대표와 친분
정세균 의장과 전북출신 인연… 文 당대표 때 비서실장

김현미(55) 국토교통부 장관은 1962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와는 직접적인 사제 관계는 아니지만 대부로 꼽히며, 같은 연세대 정외과 출신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현 차관, 김기정 전 청와대 안보 2차장 등과 연결된다.

연세대 인맥도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당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천호선 참여기획비서관, 김만수 보도지원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이 모두 연세대 출신이다. 문정인 특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연세대 라인이다.

참여정부 출신들과도 폭넓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건설교통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김용익 전 의원,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박영선, 김두관, 송영길, 김부겸, 김태년, 김종민 의원 등이 그들이다.

특히 박영선 의원과는 김현미 장관이 2007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할 때 박 의원이 후보지원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김 장관은 17대 때 박영선 의원과 나란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사석에서 두 살 위인 박 의원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노웅래, 최재천, 김한길, 민병두 의원 등 당시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과 가깝게 지낸다. 또 2014년에는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김현미 장관이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맡으며 당내에 '여풍(女風)'을 몰고 오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김광수, 김종회, 안호영, 유성엽,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과는 전북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공통점으로 뭉쳐 있다.

또 오영식, 우상호, 임수경, 최재성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깊은 인연을 맺지 못하다가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으며 친노(親盧) 주류가 아닌 인사들로 핵심 당직자를 꾸리면서 일약 비서실장에 올랐다.

곽도흔 기자 sogood@



“여성 경제인구 1위… ‘제주다움’으로 ‘양성평등 나침반’ 될 것”

W기획 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동육아·일자리 등 체감형 정책 주력
143억 투입 ‘제주처럼 프로젝트’ 시행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제주여가원)은 제주지역 유일한 여성가족 정책연구기관으로 2014년 3월 개원했다.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성계의 여론을 바탕으로 2012년 9월 제주 여가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다음 해 5월 도민 토론회를 거쳐 연구원이 탄생했다.

정책연구실과 성(性)인지정책센터, 가족화지원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석·박사 연구원 8명을 포함해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여가원은 여성가족에 관한 실태조사와 각종 기본계획 수립 등 국·도정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지 정책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개원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31건의 연구보고서와 여성·가족 정책 이슈와 쟁점을 정리한 15건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올해는 15건의 정책과제와 수탁사업 2건을 추진 중이다.

제주여가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제주도민을 위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다. 2015~18년의 4년간 계획으로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제주 맞춤형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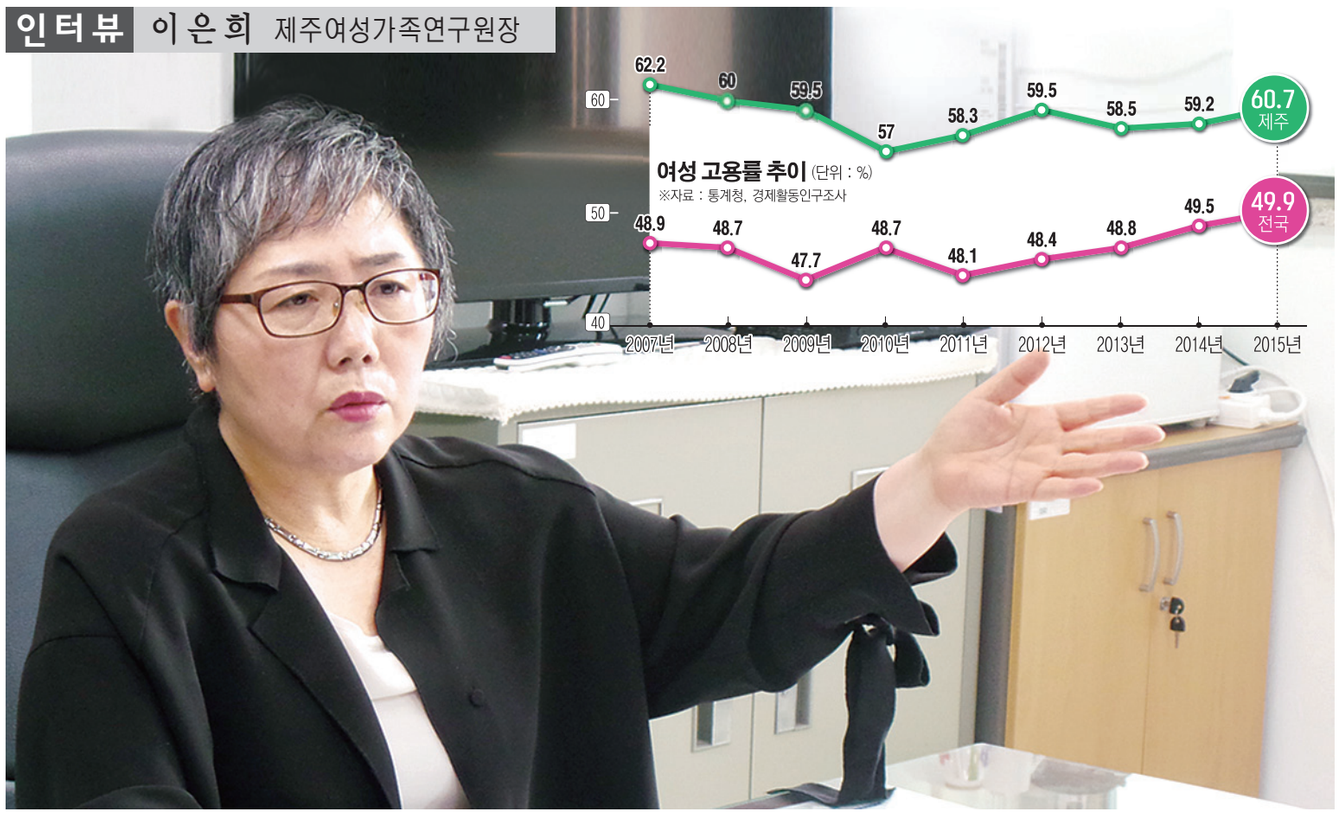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원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제주형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중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제주여성인재 아카데미 등 22개의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주=김민정 기자 mj_kim@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7일 제주 김만덕기념관에서 2017 양성평등 주간 기념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터뷰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제주 특성에 맞는 생활체감형 여성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임무”라며 ‘여성의 섬’으로서의 성(性)평등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15년간 여성가족부에 몸담고 여성정책과 권익,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두루 거친 여성정책 전문가로 지난 3월 제2대 제주여가원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서 태어나 여성가족부서 15년 근무
2015년 귀향, 4월부터 3년 임기 원장에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첫 미션

無가치로 치부됐던 여성의 삶과 문화
중앙정부와 지방간 정책 괴리 극복해
‘여성의 섬’다운 性평등 1등지역 목표

“정부정책을 도입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중앙과 지방 간의 갭(차이)이 큽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체감형 여성정책이 필요해요. 아이 키우기 좋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죠.”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은 정책수요자(제주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제주형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추세이며, 합리적인 연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어젠다를 선정해야 체감도 높은 여성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15년간 여성가족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성정책과 권익, 가족 복지 관련 분야를 두루 거친 여성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국제대를 졸업하고 제주대 행정학 석사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9년 중앙부처로 전입, 여성특위 정책조정관실과 여성부 여성권익기획과장, 인권복지과장을 거쳤고 일본노동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이후 2013년 제2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을 지냈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임용되면서 2015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3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이하 제주여가원)으로 취임해 3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제주도청에서 셋방살이 중인 제주여가원을 찾아 이 원장을 만났다. 그는 짧은 커트머리에 블랙컬러 의상으로 은은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냈고, 때론 강력한 어조로 제주 여성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으면서 개선책 마련의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제주여가원 수장으로 임하는 각오는

“제2대 제주여가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새로 정했다.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여성가족정책 중추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여성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성(性) 평등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제주여가원은 올해로 설립 4년 차에 들어섰다. 아직 신생 단계다. 그동안 제주도의 여성·가족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무했는데, 연구원 설립 이후 연구 토대를 차곡차곡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간의 경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가

“중앙 정책과 지방 행정업무를 하면서 정책의 프로세스와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랄까?(웃음)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고자 고민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예상보다 크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미시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정책과 정합성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중앙과 지방과의 접점을 찾아내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일회성, 선심성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책 대안과 과제, 어젠다 선정에 있어 연구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여성정책의 현주소는

“제주는 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이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들은 제주 여성들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용 후 처음 주어진 미션이 지역 차원의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개발이었다. 당시 도지사께서 예산에 한계를 두지 말고 마음껏 정책을 수립하라고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제주처럼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2015~18년 4년간의 계획이다. 제주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조직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했고, 6개월 만에 8개의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개인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발적 나눔 공동체인 ‘제주형 수눌음(제주 특유의 품앗이) 육아나눔터’를 마련했고, 올해 25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원장이 생각하는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다양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중의 지방, 변방이었던 제주가 지금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변모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제주 해녀 등 ‘제주다움’이 글로벌 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듯이 기존에 보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됐던 제주 여성들의 삶과 문화가 ‘제주다움’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연구원의 핵심 가치를 ‘성평등’, ‘돌봄과 상생’, ‘변화’, ‘다양성’으로 정했는데 조직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연구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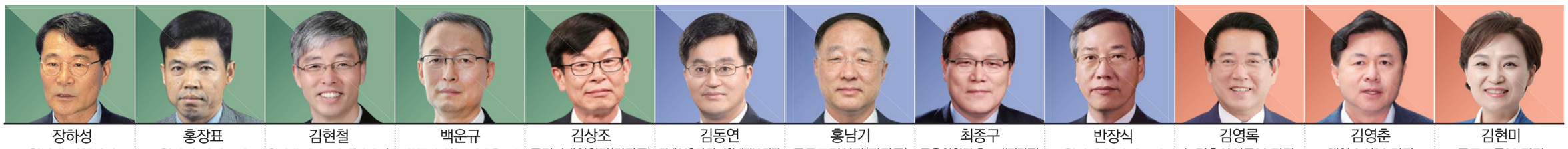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시급한 현안으로는 연구원의 독립 건물 확보다. 연구원은 인적 자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독립 건물 없이 도청 청사에 셋방살이하고 있어서 연구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내년에 별도 건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산실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 여성기구나 여성정책 기관들의 위상을 강화하려면 끊임없는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이것이 책무이자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다.”

제주=김민정 기자 mj_kim@



문재인 정부 경제팀 ① 출신 ② 주요 경력 학자 출신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차관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장관급)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① 1953년 광주 ②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휴스턴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회 위원장	① 1960년 대구 ②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제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① 1962년 경북 김천 ②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① 1964년 경남 마산 ②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연구원, 창원대 부교수	① 1962년 경북 구미 ②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 단장	① 1957년 충북 음성 ② 제15대 아주대 총장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① 1960년 강원 춘천 ②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① 1957년 강원 강릉 ②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① 1956년 경북 상주 ② 서강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① 1955년 전남 완도 ② 18·19대 국회의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① 1962년 부산 ② 16·17·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 대책위원회 위원, 김영삼 대통령비서실 정무 비서관	① 1962년 전북 정읍 ② 17·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

교수·관료·정치인 '삼각편대'… 'J노믹스' 제대로 달릴까

문재인 경제팀 '기대반 우려반'

장하성·홍장표·김상조 등 학자 출신 다수
김동연·반장식·최종구 등 정통 경제관료
김현미·김영록·김영춘 등 정계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진용이 사실상 구축됐다. 경제팀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통관료부터 정치인, 교수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교수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사에 방점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관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적의 조화를 이루면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땐 사사건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 경제팀 회동에서 소통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자는 내용이 주로 다뤄진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에 정통관료와 교수, 정치인 등이 고루 포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경제라인에 배치된 인사를 보면 교수 출신이 우위에 있다. 주로 문 대통령의 'J노믹스'를 설계한 교수들이 발탁됐다.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경제부처 수장에는 정통관료와 정치인을 앉히면서 이론 중심의 경제정책 집행자와 균형을 맞췄다.

◇경제팀 내 교수 출신 목소리 커질 듯 = 주요 경제라인에는 교수 출신의 발탁이 적지 않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청와대의 경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주체 간 소득불균형의 원인을 가장 잘 진단하면서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발탁한 인사다. 홍 수석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주창자이고, 김 경제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의 성장담론인 '국민성장론'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

교수 출신 정책라인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통관료 추진력 만나면 기대 이상 시너지
'이론과 실제' 충돌 서로 불협화음 생길수도

임명 절차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교수 출신이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한 인연을 갖고 있다.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온 교수 출신이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김 부총리와 반 수석은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은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김현미 장관은 선대위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 김영록 장관은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김영춘 장관은 선대위 농림해양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 초반 경제팀 '한목소리 내자'… 일부 우려 시각 상존 =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초반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는 않다. 서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경제팀이 처음으로 자리한 지난달 21일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당시 김 부총리를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다. 이날의 주요 의제는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시장과 국민들께 경제팀이 한목소리를 내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자, 장 실장과 김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김 부총리를 지지했다. 장 실장은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께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고, 김 위원장도 "경제팀이 원팀으로서 원보이스를 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교수 출신의 정책라인들이 내놓은 신선한 아이디어가 추진력을 갖고 구현될 땐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관료 출신의 정책라인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땐 상황은 그 반대로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세제 개편안 등과 같이 민감한 경제 현안을 두고 언제든지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념적 색채와 개성이 강한 교수 출신 관료와 경제정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간에 얼마나 단결된 목소리를 내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창균 기자 yangck@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전문성과 신뢰성 바탕 국정에 새바람 기대"
"감시자서 동반자로… 권력화 부작용 우려"

차관급 이상 12명 시민단체 활동 경력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이 출범 2개월여 만에 진용을 갖췄다.

새 정부 1기 청와대·내각 구성을 보면 대부분 노무현 정부나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인사들로 중용됐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차관급 이상 인사 중 12명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등을 통해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진 건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0억여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해 왔고,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내며 줄곧 재벌 개혁론을 주창해왔다.

내각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출신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촛불'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있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민단체 출신 캠프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린다. 우선 개혁 인선으로 이전과 다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가 가진 투명성과 전문성, 헌신성 등이 국정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 정부에서 영향력이 부쩍 커진 시민단체의 권력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시자에서 동반자로의 이동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정권 편들기에 앞장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요직에 기용된다기보다 각자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상호 검증 가능한 '무지개 內閣' 정책 실패 줄일 수 있다"

문재인 경제팀 전문가 진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54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1기 내각에는 관료,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꾸려졌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아'협치의 행정'이 이뤄 질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정책 가버넌스를 세우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양한 인재 등용의 팀 컬러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내각 인사들이 성급한 액션플랜으로 정책을 내놓을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성공은 국정철학의 이상을 실현하되, 시장과 기업·소비자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및 시민사회 설득을 통한 정책 실현이 가장 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로 부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너지를 내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들어봤다.

성급한 진보 정책, 정통 관료 경제부총리가 필터링

이성구 서울대 객원교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선에 대해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다양한 인재들이 상호 검증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성구〈사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장)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된 경제팀은 그 면면만으로는 분명한 정책성향을 읽기 어렵다"며"내각에서 분명한 정책 컬러를 읽기 어렵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경제민주화 등 경제팀의 전략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과거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처 간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에 비춰볼때 청와대 경제팀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컬러와 대비되나 전체 팀을 무리 없이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1기 내각 인선은 정책 시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교수는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는 성급한 진보 성향의 정책에 대한 필터링과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적인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장도 금융 산업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학자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뤄내는데 무리 없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가 출신의 미래부장관, 교수 출신의 산업부장관, 시민단체 출신의 환경부 장관은 기업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슬기롭게 조정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탁된 인재로 인한 팀 컬러의 차이는 상호 검증을 통해 정책의 실패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건으로는 각계각층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이상적인 정책 목표라 하더라도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협력을 얻어 실현된다"며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자원의 낭비에 그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진보진영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상에 집착해 시장을 불신하고 시장과 싸우려 들려는 것"이라며 "이미 참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나 교육정책의 혼란에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나아가 진보진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팀의 성공이라면 일방적인 규제와 지원을 확대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능력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 소비자의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한다"며 "경제계와 시민사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성공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하 기자 judi@

규정에 어긋난 관행은 교수 출신이 컨트롤 해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꼽히는 전성인〈사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전성인 교수도 새 정부의 1기 경제팀에 들어갈 뻔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보조를 맞출 금융위원장은 전성인 교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로 거론됐다. 전 교수는 또 한국금융학회장을 맡으면서 연구활동과 사회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학자 중의 한 명이다.

전 교수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은 크게 보면 교수 대 관료 구도"라며 "양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관료출신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여태까지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출신은 아무래도 현실을 잘 모르니까 현실이나 규정, 이런 것에 잘 적응하는 한편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다"며 "빨리 국정철학과 맞도록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배치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국내 경제 및 사회분야 전반적인 공약에 충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쪽은 거시정책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김 부총리와 카운터파트너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자리, 성장에도 관심을 두지만 거시시장 동향에도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있었다고 공정거래법을 모른다고 주장하긴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안과 밖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계열사를 줄줄 외우고 현안파악과 업무추진능력을 우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다른 부처와 협업이나 국정과제라는 큰 그림과 들어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 교수는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다 들어줄 순 없다"며 "귀는 열어놓데 단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소득 주도 경기 부양 … 장하성·김동연 '브레인' 역할 기대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새 정부 경제팀에 관료와 정치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였지만,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백웅기〈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임된 인사들은 전문 분야가 다르고, 지금까지 보아온 관점도 다르다"며 "이런 부분이 화합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이다.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경제 정책의 가버넌스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브레인에 해당하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하는 정책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정치권에 가서 조화롭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이기도 하지만 중견 정치인인 만큼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조화롭게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대표할 만한 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다양한 구성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본다."

그는 다양한 구성이 정책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시각을 달리했다.

"불협화음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새로운 것이 많다. 일자리 추경도, 소득주도 성장도, 별로 우리가 안 해봤던 것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해보기도 전에 '효과가 있다, 없다'논하며 반대부터 해선 안된다. 지금 있는 분들이 정책이 잘 되게 끔 도와주는 분들이라 협력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 보면 그렇게 구성한다. 학계에 있다가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학계로 가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백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경은 지금 추경 자체 문제라기 보다는, 인사청문회 등 추경 이외의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당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진척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추경만 조목조목 보고 놓고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렇다.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인 이슈와 연계돼서 잘 안 되는 인상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추경은 심사를 잘 하느냐가 얼마 만큼 효과를 보느냐와 직결된다. 어차피 남는 돈, 세수로 추경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거에는 유사 중복사업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최대
비거리가 50yd 더 나가는

209g
역사상 세계 최경량 극초고반발 드라이버 개발

가벼워서 쉽고 편하게, 스윙스피드 증가

BIG BaNG Longdistance Light PLUS

슬라이스가 없는 4세대 신기술 +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1g단위 120종류 클럽 무게중 최적화 드라이버 선택 = +50yd

최저 209g, 225g ~ 종전 절반의 무게감 | C.O.R 0.925 » 0.930 » 0.962 | 일반고객을 세계 톱 프로선수와 같은 프로세스로 클럽피팅 서비스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 1544-8070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 Fitting in Korea

www.banggolf.co.kr

산 덮친 火魔에 여의도 면적 143배 숲이 사라졌다

〈2000년 이후 산불 피해면적 4만1504ha〉

농업이 미래다

㊹ 산불과 전쟁 벌이는 산림청

일반적인 화재와 같이 산불도 소방대원이 진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소방인력도 동원되지만 주력 부대는 따로 있다. 산림청 직원들이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사람에 의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동해안 산불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총 7784건에 달한다. 연평균 458건으로 매일같이 발생한 꼴이다. 올해는 강릉 산불을 포함해 상반기까지만 58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4만1504헥타르(ha) 규모다. 여의도 땅의 143배로, 서울의 3분의 2가 넘는 넓이의 숲이 불에 타 사라진 셈이다. 재산상 피해는 2160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불이 거의 모두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자연 발생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 발생한 산불의 원인만 봐도 △입산자 실화 199건 △논·밭두렁 소각 88건 △쓰레기 소각 87건 △건축물 화재 27건 △담뱃불 실화 22건 △성묘객 실화 17건 △어린이 불장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7784건…年 458건
올 상반기에만 강릉산불 비롯 582건 발생
대부분 人災…진화대원 희생도 잇따라

산림청·소방청·지자체·軍 신속 공조 미흡
산발적으로 동원된 진화인력 전문성 부족
"초동대응 늦어져 피해 키운다" 지적도 나와
'예방·진화·복구' 산림청 중심 통합관리해야

실화나 소각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산림청 진화대원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한창이던 5월 초 일어난 강릉·삼척·상주 지역의 대형 산불로 산림헬기 정비사가 순직했다. 삼척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비상착륙하며 벌어진 사고였다. 고인은 평소 딸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성실한 가장으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산림청을 주축으로 하는 원스톱 진화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불은 길이 끊겨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입체적인 공간에서 지형과 기후, 산림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기후 변화로 산불이 빈발하는 미국과 캐나다,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숲과 산림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산불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불 발생 시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군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화 인력이 동원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각 기관이 공조하는 형태지만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초동 대응에 늦으면서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소방당국과 국방부,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도 지역별로 분산돼 따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에서 긴급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산불관리(IFM, Integrated Fire Management)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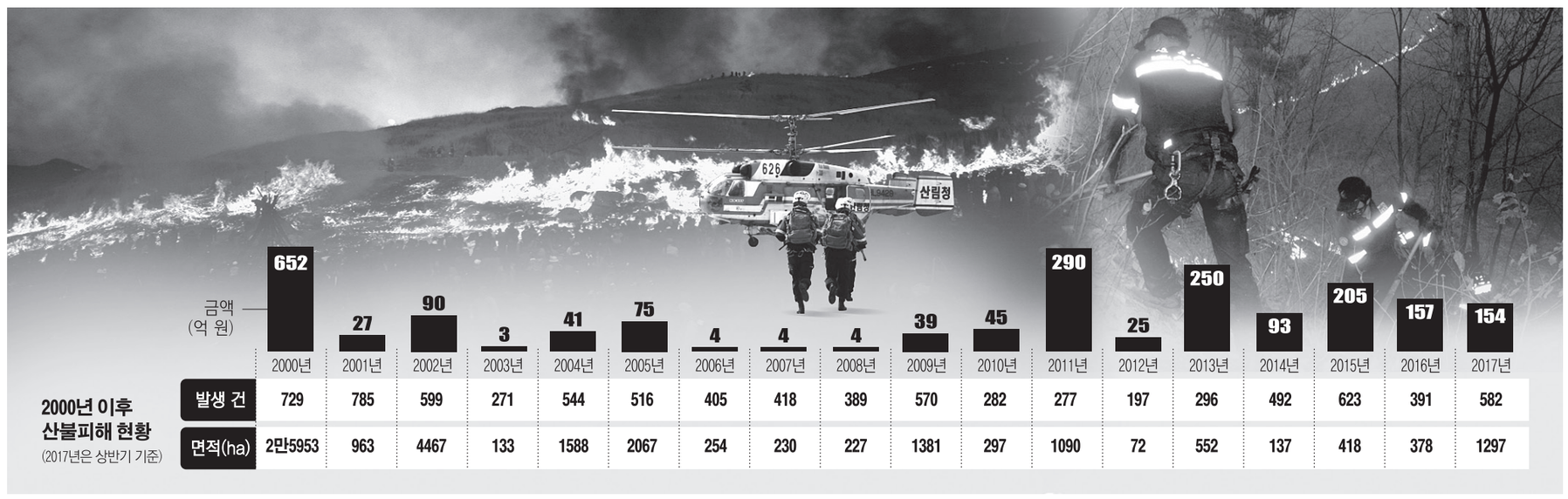
국제적으로도 산불 예방 및 진화 업무는 생태적 산불방지 및 산림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대세라는 게 산림청 입장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뒤늦게 지원헬기가 와도 효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산림헬기는 물탱크를 부착한 대형기 위주로, 인명구조가 주목적인 중소형 소방헬기와 담수량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또 산불을 진화하려면 가능한 땅에 낮게 붙어 저공비행을 하며 물줄기를 직사(直射)로 내려 불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운용 숙련도가 요구된다.

헬기가 높은 데서 멀찌감치 떨어져 비 내리듯 물을 흩뿌리면 효력이 떨어진다. 산림청 헬기는 진화 외에도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돼 산림에서의 운용 숙련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지상에서도 소방당국의 장비는 산림 하단부에 위치한 주택을 보호하거나 진화 용수를 공급해주는 보완적인 기능에 적합하다. 헬기로 주불을 잡은 후 사람이 직접 산림에 깊숙이 진입해야 하는 잔불 진화, 뒷불 감시는 전문장비를 갖추고 교육훈련으로 숙달된 산림청 대원이 주로 수행한다.

전문대원이 부족하면 산림청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정장 차림에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양동이에 물을 퍼 나른다는 전언이다. 본청을 제외한 동·서·남·북·중부 지방청과 수목원, 휴양림 직원이 상시 투입된다. 이들은 산불 진화를 비롯해 숲에 관한 것만큼은 산림청이 최고라고 입을 모아 자부한다. 현재 산림청 공무원과 정규직은 약 2100명, 계약직인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은 200여명이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2000년 이후 산불피해 현황 (2017년은 상반기 기준)																		
	발생 건	729	785	599	271	544	516	405	418	389	570	282	277	197	296	492	623	391	582
	면적(ha)	2만5953	963	4467	133	1588	2067	254	230	227	1381	297	1090	72	552	137	418	378	1297

인터뷰 김용하 산림청 차장

"대형헬기 62대 불과…골든타임內 진화 역부족"

동시다발 산불 진화 90대 필요
2025년까지 자체 60대 확충 계획
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 양성도



"5월 강릉과 삼척, 상주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산불은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헬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하〈사진〉 산림청 차장에게 산불 진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묻자 즉각 돌아온 답변이다. 그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진화헬기 확충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 15건 내지 대형 산불 3건이 하루에 발생할 때는 강풍에도 진화가 가능한 대형급 이상 헬기 90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형급 이상 헬기는 산림청 33대, 지방자치단체 임차 15대, 국방부 8대, 소방 6대 등 62대에 불과하다.

고온 건조현상 증가, 잦은 강풍, 강수량 감소 등의 기후 변화에 따라 산불 대응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동시다발 및 대형, 재난성 산불발생 위험도가 상승하는 추세다. 5월 발생한 산불은 현재 보유한 헬기만으로는 진화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산림청은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헬기 6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대형기 33대를 포함해 현재 헬기 45대를 보유하고 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응의 핵심인 헬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

산림청은 장기적으로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헬기 15대를 새로 도입하고 노후한 기종 8대를 교체해 2025년까지 6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헬기의 가격은 기종마다 다르지만 중·대형급 헬기의 경우 대당 약 250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큰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산림청에 유관기관 헬기의 신속한 동원과 지휘통제 권한을 부여해 헬기 공조진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과 소방 헬기가 골든타임 내 신속히 투입되면 초동대응 진화력이 향상돼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또 기후 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야간, 도시,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 전문 대응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헬기 45대를 운용하기 위해 조종사 89명, 정비사 7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인원이다. 앞으로 더욱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산림청 조종사, 정비사는 산불조심기간에 아프지도 못한다."

산림청의 조종사와 정비사는 대부분 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채용된다. 산림청에 입사해 한 달간 기본임무 교육을 마친 후 진화 임무에 투입된다.

"조종사의 경우 10시간의 기종전환 과정을 거쳐 산불진화 조종사로 양성된다. 산림청 채용 이후 산불진화 조종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는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쳐 개인당 약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시간당 헬기 운영비는 750만 원 수준이다. 헬기가 60대로 늘면 조종사 142명, 정비사 110명이 필요하다."

이정필 기자 roman@



英 발전소 수출 기대감에 불씨 살아난 원전 관련株

원전 동향 대표 민감 종목 '한전기술' 3.05% 올라
우리기술·한신기계 각각 6.77%·4.31% 동반 상승
원전 신형 모델 'APR 1400' 英 건설사업 후보로
"확정은 아냐… 반짝 상승 가능성 보수적 접근을"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울상을 짓던 원자력발전 관련 종목이 모처럼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영국 수출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등이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12일 국내 증시에서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3.05% 오른 2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발전소 설계 사업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한전기술은 원전 산업 관련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힌다. 아울러 원전에 경보시스템을 공급하는 우리기술이 전날보다 6.77% 오른 것을 비롯, 한신기계(4.31%), 비엠티(3.99%), 우진(3.99%), 보성파워텍(0.95%) 등 원자력발전 생태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주가도 동반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원전 관련주의 강세는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의 신형 모델인 'APR 1400'이 여러 후보 중 하나로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규모 면에서도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원전 수출이 되는 만큼 관련 종목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악재가 이어졌던 가운데 모처럼 들려온 해외 수주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다. 지난달 중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계획 발표 이후 한전기술의 주가가 20% 이상 빠지는 등 관련 종목 대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원전 관련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신민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장 초반에는 기대감에 올랐지만 장중에는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면서 "수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곧바로 차익 실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산업 자체의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3~4년이 걸리는 데다 공사기간을 포함하면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워낙 빠져 있으니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원전 관련주의 추세가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원자력발전 관련 종목 주가상승률
(기준 : 12일)

기업	주요 사업
한전기술(3.05%)	원자력 등 발전소 설계사업
보성파워텍(0.95%)	원자력발전소 철구조물 생산 및 공급
우리기술(6.77%)	원자력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시스템 공급
우진(3.57%)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 생산 및 공급
비엠티(3.99%)	원자력발전소에 배관자재 공급
한신기계(4.31%)	원자력 발전용 콤프레셔 공급

외국인 '바이코리아' 주춤 코스피 랠리에 변수 될까

지난 한달 간 8514억 순매수
5월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
IT 실적 쏠림…차익실현 예상

외국인 보유 주식 규모가 600조 원(코스닥 포함)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이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바이 코리아'가 사그라들면, 코스피 최고점 행진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1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주식을 8514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1조7000억 원에 달했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외국인은 22거래일 중 14거래일 순매수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1000억 원 이상 사들인 날은 7일에 불과했다. 외국인의 우리 증시 순매수 기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그 강도는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코스피 상승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다.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며 무섭게 오르던 코스피는 최근 한 달 동안 1.62% 상승에 그쳤다. 전날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2396.00)를 찍었지만, 이날 다시 하락했다. 우상향 기조는 이어지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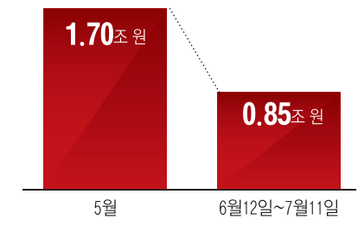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초 1120원대에서 현재 1140원대로 올라섰다. 이미 외국인은 대만과 태국에서 순매도로 돌아섰다.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IT업종 중심의 실적 쏠림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반기 파죽지세로 달리던 코스피 상승세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하반기 수출 성장률 등 경기 성장 모멘텀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3분기 조정 장세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



54만원 vs 27만원… 현대로보틱스 목표주가 2배差 왜?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증권사 밸류에이션 평가 엇갈려
현물출자 방식 유증 긍정적 평가
자회사 현대오일뱅크 배당엔 의문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회사 지분율 증가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회사의 배당성향이나 주가 상승여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로보틱스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 8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밴드는 27만~54만7000원선이다. 한국투자증권이 54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안타증권이 2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날 현대로보틱스는 전일보다 2.14% 하락한 38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월 10일 현대중공업의 기업분할 재상장을 통해 41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한 현대로보틱스 주가는 이후 37만~42만 원대를 넘나들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방식의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다.

이에 KB증권은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대주주의 이해관계로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현대로보틱스의 핵심 우량자산인 현대오일뱅크의 상장 가능성 및 배당성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권사도 있다. 유안타증권은 재상장 당시 기준주가 대비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27만 원이라는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했고, 현재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재원 연구원은 "로보틱스는 현대오일뱅크 등의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각 가능한 자산이 없는 상황에선 일정 수준의 디스카운트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기준 주가 대비 충분한 상승 여력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로보틱스가 지분 91.1%를 보유한 현대오일뱅크의 대규모 배당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오일뱅크의 과거 배당정책을 고려할 때 현대로보틱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54만7000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

반면 삼성증권은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이 로보틱스 밸류에이션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영수 연구원은 "핵심은 현대오일뱅크가 아닌 현대로보틱스의 배당성향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라며 "현대오일뱅크의 중간배당은 결국 현대오일뱅크의 현금을 모회사인 현대로보틱스로 이전는 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로보틱스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예상 ROE,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미래에셋인도,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2조 '눈앞'

4년간 20배 이상 성장 현지화 성공
현지전문가 직접 운용, 수익률 높아

미래에셋 인도 현지법인인 '미래에셋인도자산운용' 이 뮤추얼펀드 운용자산(AUM) 2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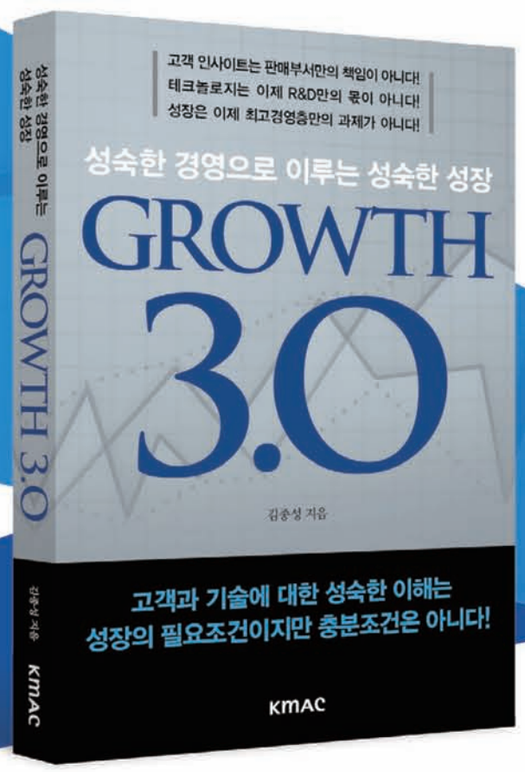
13일 금융투자업계 및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미래에셋인도자산운용의 뮤추얼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1000억 루피(1조80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3월(344억 루피)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4년 동안 무려 20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이처럼 인도에서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높은 수익률과 그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인도법인은 다른 해외 법인들과 달리 현지에서 펀딩을 할 정도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다"면서 "특히 현지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 수익률도 꾸준히 높아 인도 운용사들과도 경쟁하는 위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운용사들은 상당수 철수했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으로 전환했다"면서 "미래에셋인도법인은 순수하게 인도에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운용사 중 하나로 운용 실력도 1위"라고 덧붙였다.

2006년 11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100% 자본 출자를 통해 설립된 미래에셋인도자산운용은 이듬해 11월 30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며 관련 업무를 본격화했다. 당시 인도 법인 측은 상품 개발 외에도 뮤추얼펀드 영역 확대 전략을 발표, 이후 9년 동안 꾸준한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0년간 직원 수도 늘었다. 설립 당시 58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8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82명이 인도인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동부대우전자, 해외 매각설 '고개'

FI, 중국기업 등에 경영권 매각 투자안내서 이달 중 발송
동부그룹은 "매각 막자" 中국영 오크마와 투자유치 협상

동부대우전자의 경영권 매각 대상으로 중국 등 해외기업과 투자자가 적극 고려된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매각자 측은 이르면 이달 중 투자안내서(IM)를 발송할 예정이다.

IM 발송 대상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무게 중심은 해외에 쏠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동부대우전자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에 밀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생산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백색가전인 것을 고려하면 렌털사업자의 인수 동기는 크지 않다. 렌털사업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주력 제품이다.

이에 따라 국내보다는 가전사업에 진출하거나 이를 확대하려는 해외 투자자가 주요 인수 후보가 될 전망이다. 중국 칭다오(青島)시 국영기업인 오크마도 매각자 측 시각에서는 경영권 인수 후보가 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동부대우전자는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IM 발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은 동부대우전자 경영권 매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동부가 협상 중인 오크마는 아직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오크마가 동부대우전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칭다오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대우전자는 과정은 느리지만 오크마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경영권 매각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동부그룹의 투자자 유치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이 회사의 연결기준 2016년 영업이익은 19억 원에 그쳤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0.1로 악화했다. 재무상태와 영업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어 상표권 가치를 측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보다는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전략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은 2013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유진자산운용, KTB PE, SBI인베스트먼트 등의 재무적투자자(FI)에게 1356억 원을 빌렸다. FI는 동부대우전자에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을 행사하기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텔콘, 美 엠마우스에 540억 규모 신약원료 공급

지난해 매출액의 181% 수준

바이오 신약 개발기업 텔콘이 겸상적혈구질환 치료제 원료 공급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텔콘은 23일 최대주주인 미국 엠마우스라이프사이언스(이하 엠마우스)에 540억 원 규모의 L-글루타민(PGLG)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매출액의 18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2일까지다.

PGLG는 엠마우스생명과학의 겸상적혈구질환(SCD)치료제 '엔다리(Endari)'의 주요 원료다. '엔다리'는 20년 만에 출시되는 SCD 치료 신약이자 세계 최초 소아 환자용 SCD 치료제다.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5조 원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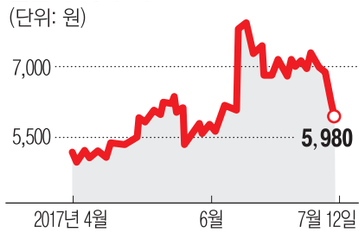
텔콘 관계자는 "엔다리가 미국 FDA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본격적으로 PGLG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향후 텔콘이 신약 공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엠마우스는 4분기부터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엔다리'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텔콘은 자동 연장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PGLG는 '엔다리' 외에도 엠마우스가 개발 중인 후속 파이프라인의 주요 원료다"며 "이번 PGLG 공급을 시작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L-글루타민〉

텔콘 주가 추이
(단위: 원)



알테오젠, 약효시간 연장 성장호르몬 임상 승인

바이오베터 'hGH-NexP' 2상…브라질 크리스탈리아 공동개발 합의

항체의약품 바이오베터 개발 대표기업 알테오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 내에서 약효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재조합 지속형 인간성장호르몬 바이오베터 'hGH-NexP'의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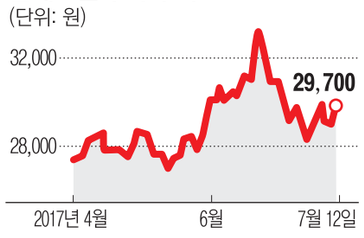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성장호르몬 생물학적 제제를 매일 투여받은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AGHD) 환자를 대상으로 약동력학·약력학 및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성장호르몬은 현재 산도스, 테바, 릴리 등에서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형 성장호르몬을 화이자나 노보 노디스크 등에서 개발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기존 단점을 보완한 약효 성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단백질을 약물과 결합시켰다.

알테오젠은 임상 2상을 마친 뒤 브라질 제약사 크리스탈리아와 공동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임상 2상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라이선싱아웃을 고려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알테오젠 주가 추이
(단위: 원)



디티앤씨, 한국형 원전 부품 내진 안전성 검증

英 신규원전에 차세대 모델 채택
사업규모 총 21조…수주 기대감

디티앤씨가 한국형 원전에 지진 대비 부품 관련 내진 테스트 등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디티앤씨 관계자는 "UAE에 수출한 원전에 기계장치 검증을 수주한 바 있다"며 "이번 영국 원전 수출에도 매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모델 원전이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채택됐다. 영국 의회 승인 등 내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이 확정되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될 전망이다.

원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조 원대의 대형 원전 수주는 원전업계에 단비와 같은 상황이다.

디티앤씨 역시 해외 시장을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 대책의 핵심으로 다량의 부품에 대한 내진 테스트가 필수이다.

우진, 우리기술, 한신기계 등과 함께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 디티앤씨는 이 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영국에 수출할 한국형 원전 APR-1400에 참여 중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국내 유일 이미지센서용 CSP 제조사

옵토팩, 中영업망 확대 나섰다

주력 모바일 카메라 모듈 넘어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 '노크'

옵토팩이 중국 시장 영업망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옵토팩 관계자는 "현재 Neo-PAC 제품이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이외에 차량용 제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기존 중국 거래 기업 이외에 다른 업체로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 이미지센서용 CSP(Chip Scale Package) 기업 옵토팩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당시 차량용 시장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

현재 옵토팩의 가장 큰 시장인 모바일 카메라 시장은 2016년 이후 듀얼카메라 모듈 채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첨단기술 적용에 따른 자동차, CCTV, 드론 등의 카메라모듈 수요가 성장할 전망이다.

차량용 카메라모듈 시장은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옵토팩은 이미 자동차용 전자부품 신뢰성 규격 AEC Q-100 인증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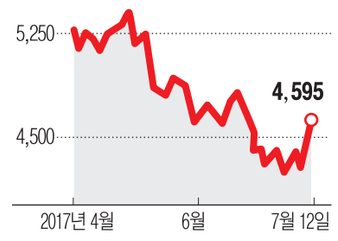
IBK투자증권도 옵토팩이 스마트폰 이외에도 자율주행등으로 자동차용카메라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옵토팩은 최종 공급자에 공급하는 제품이 아닌 중간 모듈 업체를 거친다.

이에 회사 측은 최종 업체가 어디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정도는 파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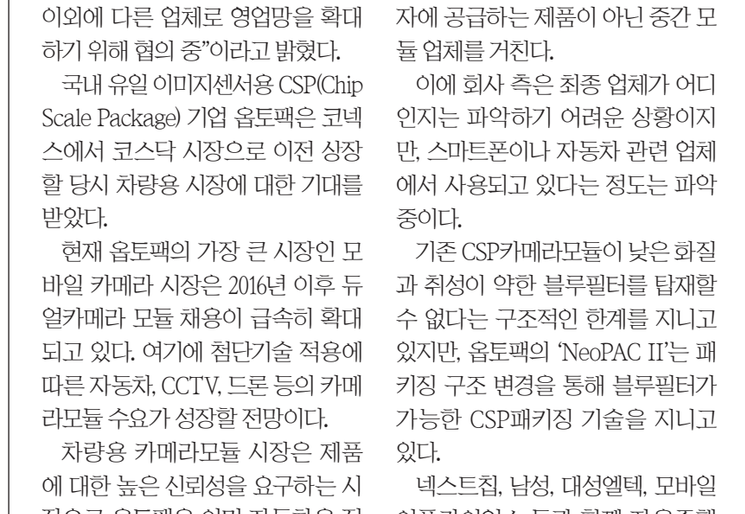
기존 CSP카메라모듈이 낮은 화질과 취성이 약한 블루필터를 탑재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옵토팩의 'NeoPAC II'는 패키징 구조 변경을 통해 블루필터가 가능한 CSP패키징 기술을 지니고 있다.

넥스트칩, 남성, 대성엘텍,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등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 옵토팩은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등 차량용, 보안용 등 각 고객사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무기로 올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옵토팩 주가 추이
(단위: 원)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17년 7월 13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218,150원	14,950원 (7.4▲)	이더리움 클래식	22,710원	5,240원 (30.0▲)
라이트코인	56,380원	2,230원 (4.1▲)	리플	235원	16원 (7.3▲)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아, 여름이구나

PART1. 어떻게 여름을 보낼 것인가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오늘 '북캉스' 떠나볼까요?!
PART3. 여름 노출 패션, 섹시함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PART4. 감각과 취향, 패션으로 시원하게 젊어지기
PART5. '발·땀·살' 한 글자 관리
PART6. 혼자 즐기는 여름 취미
PART7. 美시니어, 여름엔 뭘 하며 지낼까? 하혜연 LA 객원기자

제2인생
3D 프린터 창업, 은퇴자들의 희망 될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엉뚱하게 화제가 됐던 기술 분야가 있다. 바로 삼디, 쓰리디 발음 논란을 일으켰던 3D 프린터다. 3D 프린터 기술은 대선주자들도 관심을 가졌을 만큼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봉장으로 손꼽힌다. 3D 프린터 기술 분야는 기술과 장비만 있으면 체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다. 시니어들도 쉽게 도전해볼 만한 기술일까?





불가능이란 없다, '인간새'의 화려한 비상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일곱 달 남짓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총 1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비인기 종목이 많다.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대회를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돈을 외면하고 살면 행복해져요"
'뽀빠이' 이상용의 숨겨진 파란만장 인생담


"모두 함께 잘 살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이상희 헤어팜' 이상희 원장


철의 역사를 써나가는 칼럼니스트
전 동국제강 상무 김종대씨

달빛 아래 무르익는 막걸리
7월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니, 바로 장마다. 꿉꿉한 날씨 탓에 기분까지 축 늘어지는 날엔 노릇하게 구운 부침개에 뽀얀 막걸리가 생각난다. 깔깔한 목구멍에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 메마른 땅에 퍼붓는 빗줄기처럼 가슴속까지시원해진다. 축축한 장마에도 싱그러운 기분으로 한잔할 수 있는 막걸리 맛집, '달빛술담 문자르'를 소개한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솔직하고 섹시한 유부녀 박미선의 마지막 불꽃 태우기
영화 〈엠마뉴엘〉에서 실비아 크리스텔처럼 순진했던 여인도 서서히 본능에 눈을 뜨게 된다. 급기야 남편과 서로 각자의 다른 사랑을 인정하고 즐기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이 점을 파고들어 졸혼을 했다면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도발적인 질문을 해봤다. 개그우먼 박미선은 "푸하하!" 하고 웃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김영선·성미향·김종억·박애란·박혜경 동년기자
으이구, 주책이야

부치지 못한 편지
김인숙 소설가
'땡큐' 뒤에 끝내 못 부쳤던 말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SAMSUNG

이것은 새로운 TV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지금까지 TV의 화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당연했죠
QLED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의 화질을 100% 그대로 유지하니까



오래 사용해도 화질을 100% 유지하다
시간이 지나도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잔상이 남지 않아, 변치 않는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번인 증상 10년 무상 보증 (~8/31일 까지) |

100% TV
삼성 QLED